

비유컨데 단단한 돌을
바람이 능히 옮기지 못하
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뜻이 무거워 비방
과 칭찬에 기울지 않는다
(법규경·명철플 257쪽)

東大新聞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8
☎ 260-9491-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70-2657)

제 1205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불기2540년) 8월 26일 (월요일)

1

교육개혁시리즈

1. 총론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일 까지 무역회관(KOEX)의 열기 는 후끈 달아올랐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96교육개혁발람회가 개최되었는데, 본교를 비롯해 행사에 참가한 30여개 대학들은 각 학교의 교육개혁안 홍보에 뜨거운 한판 열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1차 교육개혁안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2차 3차에 걸쳐 개혁안을 속속 만들어내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 내용성의 문제는 접어두고서라도 '교육개혁'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져나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무방비 상태로 직면한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더이상 '개혁'이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기도 하다.

본교는 이미 93년 21세기 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개혁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고 그 결과로 95년 6월 전국대학 최초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모든 학과, 전공에 전과가 가능하며, 외국어와 컴퓨터 실습 교육을 강화해서 전공중에 외국어뿐만 강의하는 강사가 개설되는 한편, '최소전공학점제'를 도입함으로써 졸업학점의 4분의 1만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또한 4학기를 이수하고 소정의 요건이 되면 국내의 타대학이나 외국 지대대학에서 1년 수강이 가능하며 그것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등의 다양한 교육개혁이 있었다.

그러나 '수술이 서툰사람이라도 제어아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획기적인 교육개혁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슨 개혁이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본사에서는 2학기부터 교육개혁시리즈를 마련해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을 ①총론 ②수업제도 ③조기졸업과 복수전공 ④시험제도 ⑤졸업취지이수학과제 ⑥최소전공인정학점제 ⑦타대학이수학점인정 ⑧교양교육과정 ⑨전공교육과정 등에 걸쳐 다룰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지켜봐 주길 바란다.
(김기영 기자)

공안탄압·편파보도로 얼룩진 통일운동 본교생 10명 구속등 6천여명 연행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추전'과 '제7차 범민족대회'로 시작된 8월은 대외원천봉쇄와 참가학생 전원연행 방침 등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정명기·전남대 총학생회장·이하 한총련)에 대한 폭력적, 이성적 시비로 얼룩진 채 학생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총련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연세대에서 범청학련 통일대추전 행사를 약 8천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했다.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서도 13일 범청학련 통일대추전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막식과 통일노래 한마당이 진행됐으며 다음날인 14일에는 남·북·해의 청년학생 연석회의와 제1차 범청학련 총회 및 민족문화 한마당이 치러졌다.

이날 경찰은 연석회의의 진행을 막기 위해 열기 11대를 동원하여 하늘에서 최류역등 화학무기를 살포하면서 포크레인으로 교문을 철거한 후 학내로 진입, 학생들과 충돌을 빚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5일 한총련은 폐막식행사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치른 후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번 행사가 일정정도의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한 뒤 "관문점 진출, 전·노·최고형 선교투쟁 등 이후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안전취급 보장을 요구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만여명의 경찰을 학내에 진입시켜 6천여명의 학생들을

파악관과 종합관에 고립시킨 채 음식물과 의약품인입을 통제하는 등 고사직전에 돌입한데 이어 학생들이 탈진 등 극도로 지쳐있는 틈을 타 지난 20일 경찰특공대와 해경헬기 등을 동원해 종합관에 진입, 이곳에 피해있던 학생 2천 5백여명을 전원 연행했다.

한편 과학관에 피신해 있던 학생 3천여명은 이날 경찰의 저지가 약해진 틈을 타 연세대 탈출을 시도해 한총련 의정단 일부 학생들이 탈출에 성공했으나 대다수 학생들은 연회동 등지에서 강제 연행됐다.

이번행사에서 연행된 학생은 총 6천여명이며 이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본교 부총학생회장 황인규(아간영문4)군등 본교생 10명을 포함 4백60명이 구속되고 불

구속 입건도 3천3백41명이나 돼 86년 건국대 애학투쟁 사건이후 단일시위사상 최대규모의 구속자를 냈다.

이번사태와 관련 전국연합등 각 단체는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강경진압을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당국은 이성을 상실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 통일운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민련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열거 정부당국에 대화를 요구했고 대화를 평화적으로 치룰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잉진압을 강행해서 이번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총련은 23일 병동성당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관 진입과정에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김중희 의경의 죽음을 애도하며 각 학교별로 분할소를 설치해 애도의 뜻을 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총련은 "20일 학생들의 연행·조사과정에서 일부 경찰들의 여학생에대한 성추행이 있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단체등과 함께 여학생들의 증언을 모아 발표하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연륜운동협의회(이하 민연협)는 언론의 편파보도와 관련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은 국민의 판단을 흐릴 일방적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한총련과 범민족대회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9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박사 47명·석사 2백50명 수여

9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진행됐다.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황명수 총장회장 등의 내외인사와 학위취득자 2백6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식사, 이사장지사, 총장총회장 축사의 순으로 치루졌다.

각 대학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 박사 47명 석사 1백10명 △불교대학원 석사 4명, 관리자과정 49명 △행정대학원 석사 31명, 관리자 과정 38명 △경정대학

원 석사 25명, 관리자 과정 32명 △교육대학원 석사 47명 △정보산업대학원 석사 10명, 관리자과정 7명, 관리자과정 5명 △지역개발대학원 석사 3명 △문화예술대학원 연구자과정 1명 등 총 4백29명이다.

보직·직원 인사이동 경주캠 부총장 김병기 교수

학교당국은 지난달 1일의 직원인사에 이어 지난 14일자로 교원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이동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 캠퍼스)
◇교원 보직 인사
△교무처장=박부권(교육학) △학술 교류부장=한진수(회계학) △산업기술대학원 교학부장=조성구(산업공학) △학생생활연구소장서리=고진호(교육학)

◇직원인사
△교무처 입학과정=송부자 △교무처 학적과정=안준옥 △관리처 시설과정 직무대리=이정진(서비스실) 비서계장=박정훈 △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계장=손재영 △교무처 교무계장 겸 수업계장=한문우 △교무처 입학관리계장 겸 자료홍보계장=윤동규 △관리처 시설과 건설계장=김재선 △관리처 시설과 기계계장=조성문 △관리처 구매계장=이천중 △교무처 입학과=최광재 △관리처 시설과=김종기

(경주캠퍼스)
◇교원 보직인사
△부총장=김병기(국제경제학) △정규직 교사는 정무현(불교학) △직원인사
△교무처 입학과정직무대리=채찬호 △교무처 교무계장 겸 수업계장=박두만 △교무처 입학과=김종진 최수호

난방공사 등 방종공사 실시 공사지연, 수업차질 우려

서울캠 관리처(처장=김종욱)시 설과는 방종에 학내 난방, 전정, 실내 개보수공사를 실시했다.

해마다 요구되어 왔던 난방공사는 동국관, 예화관, 명진관, 도서관, 교수회관, 본관, 학림관, 계산고시학사, 금강관 등에 실시했으며 9월 말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각 건물별로 살펴보면 △도서관 =전정교체, 휴게실 지붕, 유리교체, 1, 2, 3층 화장실개수, 소방시설 개보수공사 △본관=중앙당 내부개보수 △교수회관=복도전정 교체, 동측 출입문 교체, 소방시설 개보수 △학림관=현관 출입문교체 △명진관=독서실 보수, 현관 전정 교체 및 뜰개, 강의실 도색 △예화관=천정 외부청소 교체, 컴퓨터

교육원시설 △동국관=도색, 옥상방수, 5층 도서실 에어컨 증설 △다량관=교수식당 내부개수 등이 다.

일부 난방공사와 예화관 등의 공사가 31일 이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 개강후 수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주캠은 하계방학중 남자 기숙사 내부배관 및 보수 공사를 시행했고, 교직원 아파트등 건물들 보수·수리했다.

공사를 마치며 한 관계자는 "교직원 아파트는 기간내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한 상태나, 기숙사는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관성들의 입관문제로 오늘(26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리수

우리는 누구나 지나간 일은 기억을 잘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둡고 답답할 뿐이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에 대해 직시하여 파악한다면 미래는 그다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사람이 미래지향적일 때는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그 미래에만 매달려 집착하다 보면 현실마저 망각한 미국의 숲에서 해매게 된다.

요즈음 우리의 세대는 가히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 편향적인 현상이 다분하다. 특히, 문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청산이란 명목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직도 한풀이 정리에만 급급할 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대권(大權)의 밤상에만 눈이 멀어 국가사회의 변화하는 현상에 따른 단

목마르기 전에 샘을 파라

기한적인 미래적 대응이 답답할 자경이다.

정지하는 사람이 안정되지 못한 세상 시끄러워진다. 학생운동도 결국 정치적 불안정에서 난폭해지고 있으며,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고 사회가 시끄러워지니 그저 눈앞이 캄캄하다. 현실 지도의 책임자인 정치인과 정부도 믿고 따를 수가 없고, 그렇다고 미래의 책임자인 학생마저 믿고 의지할 수 없다면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망막할 뿐이다. 우리 모두 남이 아니며 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대립과 갈등에서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마음을 열고 가슴을 펴고 미래를 걱정하고 내일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허둥대는 동안 일본과 미국의 문화와 경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범멸하고 뿌리마저 뽑아내고 자력경제를 침노하고 있다.

목마르기 전에 샘을 파야지 목마름이 닳쳐 샘을 파게 되면 물이 나오기 전에 팔라 죽어버릴 것이다. 황백스님은 "목마르기를 기다려 샘을 파는 어리석은 짓을 말라. 죽음이 박두하면 이미 손발이 쓸수가 없으니 앞길에 망망하여 어지러이 갈광질광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모두 미래를 향하여 샘을 장만하자. 동국의 발전은 바로 미래지향적 개혁의 실천에 있다.

나의 동국, 나의 국가, 나의 지구는 하나이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조용히 생각하는 명상의 여유를 가져보자.

이 법산
불교대 선학과교수

본사사령

- ◇명
 - ▲취재 1차장=김기영(사법대 교육2)
 - ▲취재 2차장=신용우(상경대 관경(야)2)
 - ▲취재 3차장=한상용(문과대 일본2)
 - ▲여론매체 1차장=양지연(사과대 사회2)
 - ▲사회 1차장=김희동(문과대 영문2)
 - ▲사회 2차장=조인선(자연대 가교2)
 - ▲사회 3차장=고지은(사과대 사회2)
- ▲문화 1차장=김상만(사과대 신방2)
- ▲문화 2차장=이성용(인문대 고미사2)
- ▲문화 3차장=한누리(문과대 국문2)
- ▲사진 1차장=이태훈(사과대 신방2)
(이상 7월 10일자)
- ◇의원면직
 - ▲최승일(불교대인철2)
 - ▲박민진(법과대 법2)
 - ▲이영규(공과대 전자공2)
 - ▲허민희(인문대사법2)
(이상 8월10일자)

●●●●
교수동정
▲전영일(건축공학)=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유럽과 미국 건축교육인증제도 연구

참사량
얼린고육
캠페인
①

개강의 권리 선언

이번 여름은 정말 무더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방학을 어떤 보람으로 채웠습니까. 배낭여행으로 도서관에서 농활현장에서 각각 자아성찰의 소중한 성취를 이룩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개강입니다. 이미 수강신청도 시작했고 강의시간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개강 첫머리의 강의는 매번 중발돼 버리고 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첫걸음의 의미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개강 첫날 면학 분위기가 넘치는 강의실,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동대신문사



한층려 사태

학우들 관심 필요

미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

구속자수 4백여명 지금까지 폭 10년전...

나는 이글에서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로...

올해 치루어진 '법정학원 통일대 축전'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열혈 애국자(?)들의 체제에 대한...

이번 연대 활동기간 내내 정부당국이 보여 주었던 비인간적 행태들은...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8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

고사작전을 펼쳤다고 하면 언론은 정신적, 도덕적 고사작전을 벌였다...

이에 우리 학생들은 이번 연세대 사태를 바라보며 올바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구 철 회 (예술대 미술학과)

중도완 썬초쓰레기통

과연 쓸모있다

교내에서 가장 많은 학우들이 모이고 사용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식당도 있고 화장실도 있지만 단연 1위는 아마 중앙도서관 앞이

다. 이런 이유로 중도완 공터에서는 언제나 학우들을 볼 수 있다...

얼마전 난 친구와 함께 중도완 공터에서 한손엔 아이스크림과 또 한손엔 불타는 담배를...

쓰레기 더미위에 다시 쓰레기를 버리자니 양상을 쫓고 남겨둔 쓰레기를 해집고...

다할뿐이나 백상식당에서 과자나 음료수, 담배를 사려고 중도완 공터에서 쉬는 학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중도완 썬초쓰레기통이 더욱 낫다(시내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정 문 섭 (사과대 사회학과)

학부제 부작용

학문상업화등 문제 많다

학부제가 시행된지 이제 두번째 학기를 맞이하고 있다. 작년 10월, 학교당국은 등록 1백주년...

학부제가 시행된지 이제 두번째 학기를 맞이하고 있다. 작년 10월, 학교당국은 등록 1백주년...

장어업 올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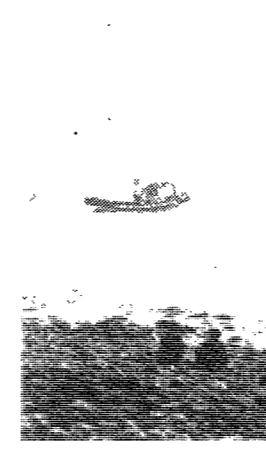
'희망'의 메달을

21세기를 앞둔 지구촌의 시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나는 최근 치뤄진 장애인올림픽을 보면서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8월 5일부터 25일까지 울림되어 치루어질 예틀

김 해 덕 (인문대 한문학과)

독자 사진



한 진 영 (사과대 신학과)

미화에만 치우쳐

미화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한 법 학문의 적자생존화이다. 내가 속해 있는 인문대의 경우, 이러한 경향력은 솔직히 떨어진다...

김 회 수 (인문대 국문과)

방중 학내 공사

미화에만 치우쳐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명제는 아마 대학이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법 학문의 적자생존화이다...

김 회 수 (인문대 국문과)

동/문/칼/럼

의적유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적들이 날뛰기는 마찬가지이다. 조선시대 도적의 대명사는 명화적(明火賊)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자신들을 조금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들을 의적으로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 성 훈 (사학 84층-본교 사학과 강사)

방중 학내 공사

미화에만 치우쳐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명제는 아마 대학이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법 학문의 적자생존화이다...

김 회 수 (인문대 국문과)

방중 학내 공사

미화에만 치우쳐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라는 명제는 아마 대학이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법 학문의 적자생존화이다...

김 회 수 (인문대 국문과)

Notice with house icon and text: '나기' '복으로 간 두 학우에게'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사람 막는다'...

Large notice area with '동/악/광/장' and '온방골' sections, containing various student notices and announcements.

북한 생존보장과 대미관계 자주성 필요



이철기
법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재 남북회담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4자회담 문제이다. 지난 4월16일 한미정상회담이 제주도에서 4자회담을 제안한지 벌써 넉달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다. 4자회담 방식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접근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고 친화적인 회담방식이라 하더라도,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정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통일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매카디즘(Mc Carthyism)적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맹목적인 친미주의에 쫓겨 있는 한 4자회담 방식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설사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반도문제 해결구도는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와 같이 북한과 미국이 주협상축이 되고, 미국이 계속해서 한반도문제의 이니셔티브

시사논단 4자회담의 전망

를 쥐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대미관계 및 대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이 요청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내에 '두개의 코리아'가 공존하는 체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리더십이 유지되는 체제, 한반도에서 미군의 존재와 미군사력의 접근이 용인되는 체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북인식 및 대북정책 역시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의 환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이러한 환상은 대북정책의 전략적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8·15경축사에서 북한의 안정을 원하고 있고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으며,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대북정책의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매우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북한을 타도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한, 이번 메시지 역시 18번인가 바뀌었다는 대북정책의 한 국면에 불과할 것

이다. 선 4자회담 수용이라는 전제조건들을 세워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새로운 인식과 전향적 사고에 기초하여, 4자회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이른바 '명화적 생존전략'을 인정하고 북한의 '연착륙'을 도와주어야 한다. 체제위기를 느끼는 한, 북한은 남북대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대미협상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만 풀리는 실마리는 다음번 북한과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일이다. 둘째, 북미관계의 현실과 북미간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북미간 관계 개선과 수교는 1994년 10월21일 제네바에서 북미간에 체결된 '북미 기본합의문' 상에 이미 그 기본틀과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미간 관계개선과 수교를 가로막고 자꾸 여러 조건들을 제시한다면, 전반적인 한반도문제 및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려갈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해 북미 수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등 북한과 미국 쌍방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북한

이 미국에 대해 4자회담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4자회담이 북미간 직접 협상체제를 손상시키지 않고 북미간 관계개선의 진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셋째, 정책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회복해야 한다. 4자회담 틀 자체는 바로 대미관계의 자주화와 대외정책의 다변화를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미 관계에 있어서 자주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은 여전히 '한미공조체제'의 일원일 뿐이고 협상라이블의 한 편에 밀려나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전시작전권과 주한 미군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없고 아무런 정책적 독자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미국을 통해 한국을 움직이고 통제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한 북한은 한국과의 직접대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동북아시아의 이제 본격적인 질서 재편기를 맞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정책 기조는 분단된 한반도에 현상유지이다. 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허용된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동북아 질서재편이 완결되는 시점에서는 우리의 민족통일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북관계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통일의 기본틀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인가를, 이제는 정권안보적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적 차원에서 정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설

학생운동의 새 국면

한총련이 주도한 통일운동인 범민족대회에 대해 당국은 막대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원천봉쇄와 대외봉쇄를 감행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의 핵심세력이자 대학자치기구의 연대조직인 한총련의 이적성과 용공성을 이미 사회여론조성을 통해 굳히기에 접어들었다. 대대적인 검거선봉과 학생운동의 통제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물론 사회각계가 앞다투어 과격한 학생운동을 질타 매도하고 척결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즈음 과연 학생운동의 설자리는 어디인지, 또 왜 소나기들매를 맞게 되었는지 냉정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여전히 폭력적 탄압에 대응하여 어쩔 수 없는 과격한 방어라든지 순수한 통일열정의 왜곡, 역사적 학생운동의 소명을 저버리는 공안정권분석을 주장하는 일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까지 않다. 정부당국도 학생운동 자체를 결속한 체제전복의 이적행위로 몰아부치고, 각종 언론은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운동권 패러지기에 앞장 서고, 대학당국도 끝까지 거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명하는 등의 소위 일련의 집단과폭행 현상도 우려되는바 크다. 간명하게 전제하자면, 순수한 학생운동은 청산 대상이 아니라 육성의 대상이다. 일찌기 민족과 국가의 위난에 장년 학도들의 자기 희생적 감투정신이 드높게 구현된 경우가 허다하다. 가깝게 따져봐도 독재정권에 맞선 4·19혁명과 6·10항쟁 등이 그렇다. 어떤 특정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대학지성은 언제나 참예한 현실인식과 이상적인 미래전망으로 기성사회의 타성과 수구적 성향에 적극적 반성과 극복을 시도하게 마련이다. 그 순수성은 때론 현실정서와 갈등하기도 하고 완강한 반감을 초래하기도 하고,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 엄청난 탄압을 겪기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학생운동이 천덕꾸러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 대학의 한 주체로서 학생의 자치적 역량과 조직은 한결 견고해져야 한다. 편협하고 경직된 이념과 독선만이 학생운동의 정체성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학생대중은 물론이거니와 일반국민들의 우호적 관심과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향목표와 행동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대학가가 변화와 자유의 분위기가 아니라 총각간부들이 연행되고 잠적한 암울한 상황에서 개혁을 맞이하게 된 것이 여간 안락하지 않다. 대학당국은 일방적인 여론편에 등태될 학생운동의 위축시키거나 침묵하려 하지 말고,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현명하고 너그러운 지도방향을 자율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동국만평



현대만 원시인

이번호부터 만화·만평 필자가 바뀝니다

최근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이하 MS사)가 제작한 세계지도(CD-ROM) '엔카르타 월드 아틀라스'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일방적, 전지적 중립국으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해 세계 컴퓨터 시장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MS사측이 3년의 제작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에 출시한 이 CD는 지리학, 국제관계학, 컴퓨터 공학 등 7백여종의 관련서적과 수십개의 학습단체 그리고 미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2년 미국의 국립 학회가 발간한 세계지도책 '아틀라스 오브 더 월드'의 표기내용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류 발생 배경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엔카르타 월드 아틀라스'에서 울릉도와 독도, 천지를 찾아 지정하면 각각 일본과 중국땅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나온다.

한편, 한국이 약 2백여년 동안 일본의 지배에 있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지지하는 내용 '남쪽 해안에 가아라는 4번째 국가가 있었다. 일본에는 미마시로 알려져 있었지만 가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가아를 지배했던 일본과 한국의 다른 국가들과 가까

◇MS사 세계지도 시디를 오류

울릉도 일본땅? 천지는 중국땅?

국제정보사회에 한국자료 정확히 인식시켜야

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와 "무사시(356~363동지)가 죽자 권력을 이어받았다. 이 무사 황후는 군대를 정비하도록 명하고 한반도 일부를 침략하여 정복하였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MS사의 한국 현지법인(주)마이크로 소프트웨어(대표=유승삼)는 이와같은 오류 부분에 대해 "잘못 표기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미 본사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MS 월드 아틀라스' 문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 첫째, 백두산의 천지는 현재 북한과 중국간의 영토 경계 구분의 이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틀라스에서 보면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되어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선 협정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는대로 본사에 전달하여 지도 수정을 요구하겠다. 둘째, 지도상에서 울릉도를 누르면 일본이라는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한국이 나와야 옳은 것이나 아틀라스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최대 확대 배율 지상 2백 킬로미터상공에서 지역을 개괄하는 것인데 지역 위치 자료의 입력 오류로 인하여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여 울릉도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명확한 잘못이며 다음 버전에 수정하겠다. 셋째, 독도는 'Tok-do' 및 'Take Shima island'로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데 후자는 한

국 영토인 독도이며 대한민국 경찰이 상주해 있고 한국에서는 일본의 주장이 허풍의 담뱃방 가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증거가 있음을 알려 한국 영토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사과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한 관계자는 "MS사의 사과문은 사실상 사과문이 아니라 '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니 분쟁후에나 고쳐질 것이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며 천지도 비록 이견이 있다고는 하지만 점선으로나 표시된 것이 있고 울릉도와 독도도 분쟁이 있다고는 하지만 명백한 실선으로 한국영토로 표시되어 있는만큼 이러한 MS사의 주장은 변명도 불과

하다"며 강력히 질타하였다. 또한 이러한 여론 이외에도 MS사 제품 불매운동, MS사의 영역에 속해있는 윈도우, 도스의 사용 약제, 모든 통신사에 MS규탄 게시판 설치등을 추진중에 있다.

MS사가 3년여에 걸쳐 만든 '엔카르타 월드 아틀라스'는 '엔카르타 시리즈' 중의 하나로 전세계 정부, 교육기관, 언론사, 여행사 등에서 교육용 및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른 출판물과 지리 관련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에 이용될 전망이어서 조속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백과사전과 세계지도 등 두종이 나온 '엔카르타'시리즈는 출시 이후 줄곧 CD-ROM 타이틀 판매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베스트 셀러이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천지, 독도, 울릉도가 한국땅이 아니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높으며 지질 세계 자본 시장의 흐름에 이끌려 다닌다는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법인 MS사는 미 본사에 정확하고 빠른 자료제시로 더 이상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송선경 기자)

"구속학우 영치금 마련 및 부상학우를 위한 모금운동"

사천만 국민이 철천진 거리의 통일을 절절히 염원했던 범민족대회의 장, 그곳 연세대는 더이상 진리의 상아탑이 아닌 전쟁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며칠째 굶주려 부상과 탈진, 탈수로 저항할 힘조차 없는 학생들을 무차별한 폭력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전례없던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70여명의 동국대 학우가 참가한 가운데 50여명이 연행되고 부총학생회장(황인구)을 비롯한 5명의 학우가 구속되었으며 구속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폭력연행되는 과정에서 두명의 학우가 크게 부상(앞니 8개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당했으며 그외 많은 학우들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동국대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부상학우 치료비와 구속학우 영치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만이천 동학인과 동문선배님의 힘을 모아냅시다.

아래 지로번호로 보내주시는 성금은 부상학우 치료비와 구속학우 영치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지로번호: 조흥은행 탁용달 313-04-452624
우체국 탁용달 012328-0097-847

동국대학교 비상대책위

공 고

'96학년도 신입생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학점 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2학기 특별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시험과목 및 시간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 간
교양필수	00005	컴퓨터실습1	2	09:00-09:50
교양필수	00010	실용영어2	1	10:00-10:50
교양필수	00008	영어회화2	1	11:00

2. 응시자격 및 과목

가. 자격: '96학년도 1학년 재학생(1학년 복학생 포함).
나. 과목: 2과목까지(3학점 이내)

3. 시험일시: '96. 9. 7(토) 09:00

4. 전 형 료: 과목당 30,000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간: '96. 9. 2(월)-9. 4(수), 3일간
나. 장소: 교무과(접수시 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

6. 전형방법

가. 컴퓨터실습1: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하게 한 후 이의 내용을 근거로 평가(실습레스트)
나. 실용영어2: Native Speaker가 녹음한 레이프롬 시험실시 후 평가
다. 영어회화2: 외국인 교수와 Interview로 진행

7. 합격자 발표: '96. 9. 10(화), 15:00

1996. 8. 26

교 무 처 장

기원학사 입학생 모집

'96학년도 2학기 기원학사의 입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12명
2. 입사자격: 1, 2학년 남학생
3. 입 사 비: 오만원(W 50,000)
4. 식 비: 1학기당 사십만원(W 420,000)
5. 접수기간: 8월26~28일
6. 접 수 처: 학생과(☎ 260-3047, 8)

※입사발표는 8월 30일(금)에 개별통지합니다.

학 생 처 장

안경 가격 조정

1. 실시시기: '96년 9월 1일부터(2학기 개강)
2. 내 용: 이전 가격의 20~30%추가 인하

① 구 분

△안경테-렌즈 △콘택트 렌즈
②가격 조정 내용
△주요품목 2~3만원대 가격
△시중가의 20~60% 할인 가격

③기 타

△시력 검사 무료 실시
△각종 A/S 무료 서비스

주최: 샘물 안경원
(다할관 지하 TEL 260-3759)
협찬: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제7차 범민족대회

취재낙수

침바지...유죄(?)

○...경찰서에는 때마침 무고한자가 독시를 독시를 했다는데. 원 무고한자? 무의인이 했더니 경찰의 무자비한 검문그룹에 걸려든 희생자들이다. 기사에 가다 백골에게 걸려든 여학우, 병원에 가다 잡힌 남학우등도 있지만 데이트종인 남녀까지 연행했다고. 황당한 두 학우의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백골이 대답하길 "침바지에 티셔츠, 딱 데모복장 이잖아!" 쿼에 붙이면 쿼걸이, 쿼에 붙이면 쿼걸이라더니, 백골의 어거지를 여기서 실감.

침입자

○...통일문화재단이 개막 직전 연세대상공에 11대의 헬기가 뜨면서 전경들의 학내 진입이 시작. 이 때문에 이과대등 몇개 건물에 학생들이 잠시 피신(?)해 있는 사이도 난사건이 발생했다고. 학생회장이 탈린 것이다. 지난 불대동제때 모아 두었던 고 노수석 열사의 기금 2백여만원과 수천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지갑이 어디로 갔는지 모두 없애져. 이에 괴짜 한 학생들 "비자금 조사는 철저히 하면 되고, 주민등록증은 우체통에 꼭 넣어졌으면 좋겠네요"

종업 종업

○...92년부터 버리고 버려진 범청학원제1차 총회가 결성5년만인 올해 드디어 그 역사적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이 자리에 서남총원 학우들이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영광을 받았는데. 그러나 총회가 시작되자 약 물은 사과를 먹은 숲속의 공주처럼 잠에 빠져드는 참관인들. 마치는 박수소리에 놀라 잠을 깬 한 학우 "발제의 어려움, 좁은 장소, 많은 사람들, 고온, 더운 배, 피곤한 몸..."이라며 종업종업.

위장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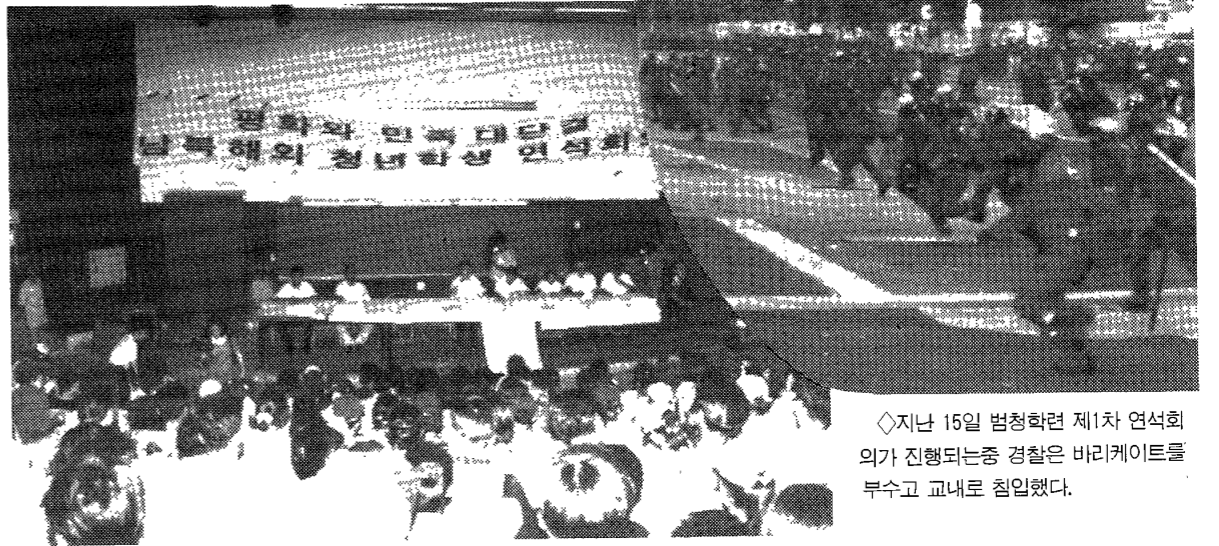
○...여기는 제6차 범청학원 통일대축전과 제7차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행사장.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학우들의 모습들은 피로해져만 가고. 행사가 끝나자 여학우들은 화장실로 속속 모여드는데. 화장실을 다녀온 여학우들은 그 안에서 메이크업 강좌라도 받았는지 무대에 올라가도 손색이 없을 듯. 알고보니 질문을 무사 통과하기 위해 치장한 위장을 하려고 모여든 것. 덕분에 검문하는 경찰들 시위대 착출에 열음이라 말하기를 "이리송해!"

◇ 범민족회의·범청학원 총회·연석회의 개괄

3자연대 통한 민족대단결 주력

범민련과 범청학원이 주최한 범민족대회와 통일 대축전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범민련의 범민족회의, 범청학원의 연석회의와 총회이다. 양측이 이 회의들을 치르기 위해 지금까지 벌인 투쟁을 떠올려 본다면 그 의미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범청학원의 연석회의와 총회는 6차 통일대축전이 치러지는 마당에서 처음으로 성사되어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범민족회의는 통일에 대해 남·북·해외의장단이 모여 그해 사업을 논의하는 범민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년에 한번 개최된다. 이 회의는 통일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문제의 거점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91년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하면서 통일에 있어서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문제를 전면에 내건바 있다. 범민련의 한 관계자는 "통일이 교류와 협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NAFTA, EC등 국가 연합의 형태를 띤 조직들을 보면 외교와 교류를 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각각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나라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실리 추구의 임장이지 하나라도 통합은 아니다. 통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만을 말한다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통일에 있어 정치·군사적인 면이 부각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입장에 따라 범민족회의는 7천만의 투쟁과제와 조국통일을 위한 사상, 조직, 투쟁에 관한 정치적 결의 내용을 포함한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6년 제7차 범민족 회의는 지난 15일 스자주 병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연방제 통일방안 실현 △조국통일의 주체 강화 △통일에국인사 석방 △일련의 군국주의화 반대 △통일 운동단체의 연대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끝이 났다. 범청학원 연석회의는 남·북·해외의장단과 학생들의 대표인사로 구성된 평화와 민족대단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회의는 1948년 김구 선생 참여로 사



◇지난 15일 범청학원 제1차 연석회의가 진행되는중 경찰은 비리케이트를 무수고 고내로 침입했다.

상, 이념을 초월해 민족의 공동·공영·공존을 논의한 '남북정상회담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총련 의장 정명기씨는 "청년 학생은 조국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삶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실천이 필요하다. 연석회의는 이러한 실천의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이번 1차 연석회의에서는 '조국의 평화와 민족 대단결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와 '범민족적 통일 강화·발전을 위한 청년학생의 과제'에 대한 안건으로 논의가 이루어졌

다. 그러나 논의 도중 경찰의 대회장소 점탈 소식이 전해져 민족 대단결 운동과 범청학원 강화에 대한 방향성을 알리고 호소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가 요약됐다. 범청학원 총회는 이번 대회가 남·북·해외에서 따로 개최됨에 따라 그 참가 대상이 한총련 중앙위원회이며 범청학원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강령 규약을 확정한다. 지난 14일 성사된 1차 범청학원 총회는 강령 규약확정과 함께 통일방안과 통일운동 강화 발전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진행됐다. 그 결과 △민족대단결

사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공공사무국의 활동력을 강화하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범청학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총회와 연석회의를 성사시킴으로써 그들의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통일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은 심해졌다. 앞으로 이들의 결의가 어떻게 실현될지 궁금하다.

동약로

가짜(?) 개강

진짜 개강일은 언제일까? 지난 20일 문과대 어느 학생회에서는 개강에 대해 여러 말 이 오갔다. 어느 한 학생은 "실질적인 수업은 한 주 뒤에나 가능하"다"며 "개강이 1주일 지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 다닐생각"이라 말한다. 그 래서 개강 첫주는 학교 다니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잘못된 말이 없다는 듯 "수강 정정기간의 혼란스러운, 교수님의 잦은 휴강등으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개강 첫주부터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강신청을 1학기말에 하지 않은 그 학생들로부터 비롯된다. 23일 현재 수강 신청율은 65%정도 수준이다. 교수과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개강일에 맞춰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북학생들을 제외한 90%이상이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데 20%이상이 미달인 상태에서 교양과목 강의실 선택 및



강사초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한다. 길게 살펴보면 개강이 늦어지는 이유는 비단 학생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다. 모과대 교과과에서는 "아직 5명선의 강사가 초빙이 안된 상태"라고 말한다. 개강전까지는 모자른 강사를 전원 초빙한다지만 개강을 하 루 앞둔 시점에 어느정도의 실력을 갖춘 강사를 초빙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강사 초빙은 교양과목이 대부분으로 초빙이 안될 경우 2~3백명이 1명의 교수에게 매달려 수업을 받아 수업의 능률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실정이다. 강사초빙은 교수와 학교당국간의 긴밀한 협조이래 이루어지는 것인데 각 단과대마다 미결정 강사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서 본교내 구성원들간 협조 관계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모두 어려운 사정이라 있었지만 일 주일 늦게 시작되는 실제 개강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피곤함과 불만을 안겨 주는 지금, 문과 이런 생각이 난다. "개강을 1주일 전이라 생각하면..." (한상용 기자)

◇ 범민련·민족회의간 통합 행사 논의 과정

통일에 대한 관점 차이로 의견 불일치 연세대·마로니에 공원에서 각각 치뤄져

범민족대회가 지난 90년부터 개최된 이래 제7차를 맞는 올해 처음 반쪽대회로 치뤄졌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 본부와 민족회의의 소속단체인 전국연합은 지난 8월 초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연세대의 마로니에 공원에서 민간 통일운동 행사를 각각 치르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협상은 문정현신부와 이승원 환경철 부의장이 풀란트에서 범민련 북측본부대표단과 합의해 남북합의문으로 전기를 맞 이한다. 지난 6월18일부터 20일까지 북측 본부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작성된 이른 바 6·20 합의문이 그것이다. 두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대회의 명칭을 제외한 모든 내용적 합의를 이루었다. 96년도 통일운동 행사가 남·북·해외의 모든 통일운동 단체가 함께 단결한 가운데 치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둘은 범민련 남측 본부의 대표도 민족회의의 대표도 아닌 민족회의의 소속단체인

전국연합에서 파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상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지만 무리없이 두사람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논의는 지속될 수 있었다. 협상은 전국연합과 범민련 중심으로 진행되어 갔고 이 논의의 결과들을 전국연합 주체가 민족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명칭에 있어서 범민련과 민족회의의 입장차이는 두드러졌다. '제7차 범민족대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96 평화통일 범민족대회'로 치루자는 범민련(남·북 포함)의 주장과 '96 평화통일 전민족대회'로 해야한다는 민족회의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그러나 의중에서 지난 7월23일 범민련 남측 본부는 "전국연합 대표를 겸한 민족회의 대표들과 15차례의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전국연합과 범민련 사이의 협상결과를 가지고 범민련과 협의할 것이라는 민족회의의 중앙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총련 중앙상임위

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민족회의측은 다음날 범민련 사무국에 공문을 보내 한총련 중앙위에 보낸 공문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해명과 시정을 요구했다. "전국연합의 협상대표들이 민족회의 내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터 협상의 불길한 징후는 예고됐고 8월초 협상이 흐전되는 계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별다른 성과물을 남기지 못한채 논의는 일단락됐다. 올해 나타난 통일운동의 분열 양상은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통일운동의 분단위기'라는 뜻지못한 표현이 현실화 되면서 한총련의 사회적 고립위기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간 이어 온 통일운동의 성과가 자칫하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간 통일운동의 분열양상이 점점 날아오르는 통일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줄까 걱정이다.

POSCO 메시지 도전편

시테크 방학, 미래의 전략입니다.

시테크- 시간의 시(時)와 기술의 TECHNOLOGE의 합성어로 기업에서는 보편화된 경영전략의 한 기법입니다. 시간관리의 소중함을 적절히 지적한 이 말은 바쁜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에게 목표설계의 합리적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기가 지식을 쌓는 기간이라면 방학은 미래전략적 지성을 닦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젊음에게 방학은 또 다른 도전의 시간입니다.

방학을 맞아 그동안 학문에 쏟았던 시간과 정열을 인생의 폭을 넓히는 데 모두 쓴다면 새학기에는 좀더 성숙한 새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앞서 있을 것입니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항제철

제7차 범민족대회

◇한총련 이적성 논란

학생운동사 이어온 백만의 자주적 조직 이념논쟁 이전에 조직이해 기본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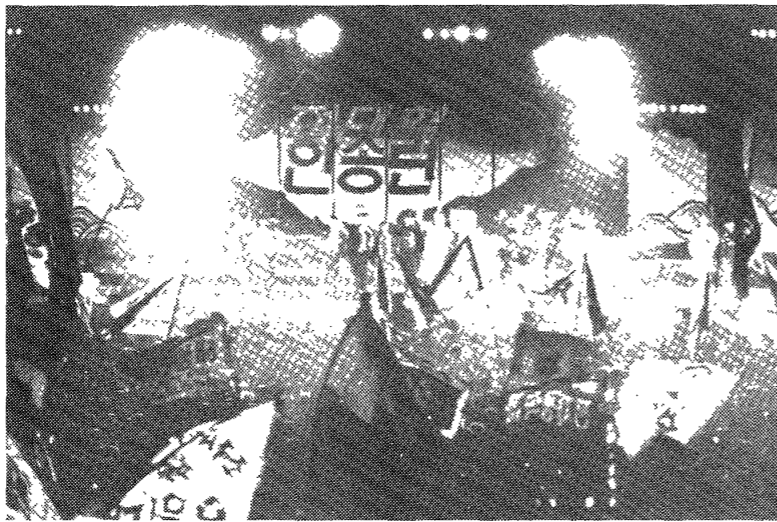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정=정명기·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 8월 9일 이수성 국무총리의 '친북집회 일체 불허'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와 각 보수언론은 마치 '벼르고 불러왔다'는 듯 일제히 한총련을 비난하고 나섰다.

비난의 요지를 살펴보면 '친북단체', '폭력 조직이다', '좌경공공세력이다', '체제전복을 꾀하고 있다' 등으로 요약되며 '한총련은 북한 정부의 사주를 받은 위험한 조직'이라는 것이 그 주내용이다.

그러나 한총련이란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와 일부 언론의 편견이 얼마나 무모한 발상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총련은 말 그대로 한국에 있는 대학(4년제)의 총학생회로 구성된 연합체이며 8개 지역, 1개의 특별자치구를 두고 있고 가입된 학교만도 2백4개 대학에 달한다. 여기서 총학생회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참고로 본교의 총학생회에서는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면 법시외에 있다. 이것은 바로 한국의 4년제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백만이 조금 넘음)이 한총련의 구성원임을 뜻한다.

한총련의 역사, 즉 뿌리는 한국의 학생



◇한총련은 학생대중의 조직으로서 발전해 왔다. 사진은 제7기 한총련 출범식.

운동사에서 찾을 수 있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6년을 포함 올해로 10년을 맞이하는 한총련이지만 그 기반은 한국 사회발전의 이끌어 온 학생운동의 역사속에 다져져 온 것이다. 한총련이 지난해 보여준 5·18 학살자 처벌에 대한

집념은 그 자체가 학생운동의 정체성이자 담보성이다.

한총련이 이뤄낸 조직적 성과는 학생운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는데 그 중 핵심이 되는 기구는 매년 3월 열리는 정기 대의원 대회다. 어느 조

직이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조직의 방향, 정책 등이 제시되듯 한총련 또한 최고 의결기구이자 최고 권력기구인 대의원 대회에 의해 일련의 사업들이 논의·결정·진행되고 크게는 조직의 진로까지 좌우된다.

이와 같은 성격을 띠는 대의원 대회는 각 학교 총학생회 정·부회장, 단과대 학생회장을 주축으로 구성되며 참석인원은 1천여명에 달한다(대의원 대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규약 제4장 11조에 명시) 각 대학의 학생회 선거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보통·비밀·직접·평등의 4대 원칙에 의해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의원 대회가 갖는 의의를 뒷받침한다.

한총련은 백만 청년학생들의 자주적인 조직이다. 정부는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때문에 한총련이 '북한정부의 사주를 받고 행동한다'는 정부측의 주장은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 한총련에는 백만 청년학생들의 의식과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와 전통이 스며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념논쟁을 벌이기에만 급급한 현 정부와 일부 불지각한 언론들에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지점이다.

“보다 대중적인 행사가 됐으면”

행사가 진행되면 14일 오전 연세대 교정인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이번행사 사수대로 활약중인 박동운(국민대 가림)을 만나 보았다.

- 사수대인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인지.
= 사수대라고 이번 행사에 참가했고 1학년 때부터 계속해 왔다.

- 사수대로 댄다는것이 여간 힘드실일이 아닐텐데.
= 육체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뒤에 본대원이 있다는 생각에 힘을 낼 수 있다.

- 본대원에서 많은 화우들과 함께할 생각이 없는지.
= 한두번 본대원에서 함께 해 봤지만 너무 답답해서

- 폭력시위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않은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시위자체를 행할 수 없음을 이해시키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다.

- 간다가 했던 것처럼 비폭력 평화시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 간다가 평화시위를 벌였던 당시의 정부 권력층과 지금 우리의 그것은 너무도 다르다. 우리 정부는 지금, 너무나도 폭압적이어서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없다.

- 이번 행사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 보다 대중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들 건강하게 한마음 한 뜻으로 무사히 이번 행사를 마칠 수 있었으면 한다.

범대회에서 만난 사람들

“시민피해 최소화 할 것”

제6차 범청학련 통일 대추전과 제7차 범민족대회가 지난 13일부터 3일간 연세대에 치러졌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아들의 치료를 위해 올라왔다는 이창현(충남공주·회사원·34)시민을 만나 보았다.

- 학생들이 통일운동을 하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통일운동,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최우선 때문에 고생이 심하다. 하더라도 병원이 없는데라든지 시민의 피해가 적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 방북한 도종환, 류세홍 두 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좀 무모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님 생각하면 그렇게 못할텐데... 북으로 가는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

- 통일에 대한 전망은.
= 언젠가는 되겠지만 좀 오래걸릴것 같다. 남·북간의 이념대립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나같은 사람은 통일의 필요성 같은걸 절실히 못 느끼며 산다.

- 만일 아들이 운동을 한다면.
= 글썄, 내 아들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치고 연행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가.

- 범대회를 보면서 느낀점은.
= 학생들과 전경들이 싸우고 다치는게 보기 안 좋았다.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최우선을 쓰는 경찰들이 이해가 안된다. 환자들 생각은 안 하는지 원.

◇언론보도 진단

친북활동 제동과 공권력 위상 강화 의도

이적단체로의 매도아닌 통일논의에 초점 맞춰야

지난 13일부터 최근까지 신문지상과 방송은 연일 범민족대회를 비롯해 한총련 관련 소식으로 첫부분을 장식했다. 언론의 줄기찬 보도 덕분에 사람들은 한총련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일부 언론은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 전략에 따라 남·북·해외의 주사파 합동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범민족이며, 그 외곽의 청년 조직이 범청학련, 이 범청학련의 남측 본부창구를 맡고 있는 것이 '한총련'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총련이 주축이된 범민족 관련 행사- 제7차 범민족 대회,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추전은 '국법을 어기며 북에 들어가 공산당과 함께 관문점에 나타나 온갖 반국가적 독살을 행했던 자들의 소행이며, 수도 한복판을 속대밭으로 만들

고, 또 남의 대학을 점령하고선 집기와 시설물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적으로 매도하며 쇠파이프와 화염병 투쟁을 벌인 주사파 집단인 대한민국 기본 질서 파괴소동'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동에 대해 정부는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과 경제회생 그리고 민주주의 정착 노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1만 여명이 넘는 병력과 중장비, 헬기를 동원해 시위를 진압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정부측의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를 널리 알리는데 일부 언론이 대변인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한총련의 입장은 다르다. '행사 전부터 집회를 합법적으로 치르기 위해 정부와 접촉을 하려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보수

층의 표류기를 위해 한총련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는 일부 학생들의 과격 폭력시위 양상과 친북 성향을 가진 한총련 지도부의 활동에 제동을 가는 한편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다목적 조치로 보인다라고도 한다. 그래서 집회해산이 아닌 검거 위주의 진압이 자행되었으며, 퇴로를 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 강행했다는 것은 일부 보도와는 달리 검거를 위한 유인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의 사건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혼란이 따른다. 한총련은 활동을 통일 운동 선상에서 보지 않고 다른 꼬투리를 가지고 몰아세워 신공안정국, 반공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꼴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총련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적단체 이거나 꼭두각시로 규정하는 것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 '두더위 속 시인 고종 최' '시민들과 과격시위 짜증난다'라는 식의 보도로 논점을 다른 쪽으로 돌려 광경을 과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언론을 앞세운 정부의 논리든 정부의 논리에 편승한 언론의 논리든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사실이 무엇인지는 쫓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평화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모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반

김기영 기자
김희동 기자
고지은 기자
이태훈 기자

심미선 기자
김경미 기자
최정식 기자
김용환 기자
신유현 기자

Anam National

“스페셜라이저 서라운드에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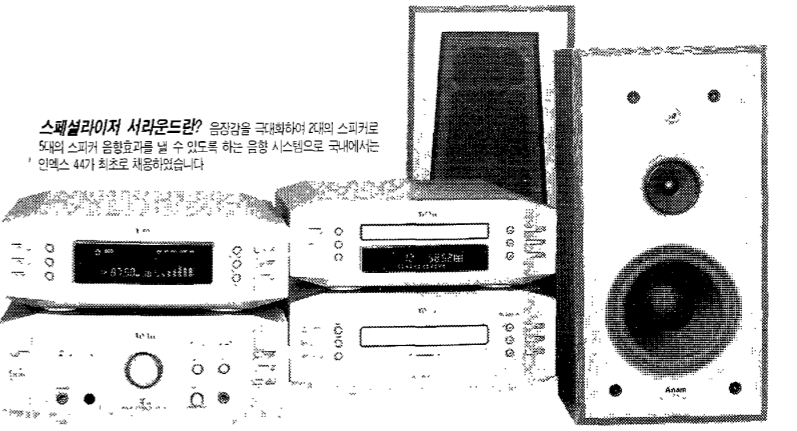
눈을 뜨면 사라지는 스피커가 있다

보이는 것은 두대의 스피커, 느껴지는 것은 다섯 대의 스피커! 인엑스 44



아남오디오 음질 평가단 1차보고
더욱 좋은 오디오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선발된 100명의 '아남오디오 음질평가단', 국내최초로 채용한 스페셜라이저 서라운드 시스템에서 다차원까지 - 인엑스44에 대한 '아남오디오 음질평가단'의 만족은 한결같았습니다

“스페셜라이저 서라운드는 특히 TV에 연결해서 영화를 볼 때 아주 실감났다.” 남정환 (서울시 강북구, 남)
“인엑스 44, 스페셜라이저 서라운드가 대단하다. 특히 Rock그룹의 라이브를 들을 때” 김우미 (서울시 강북구, 여)
“신세대 감각의 색상과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이영진 (서울시 강북구, 남)
“조그만 덩치지만 출력이 100W나 되니까 여유가 있어요.” 이영진 (서울시 강북구, 남)
“인공지능 시기능이 크기에 비해 정말 다양합니다.” 정재혁 (서울시 남동구, 여)



3차원 입체음향 4단본래 인엑스44
●광대역폭 100W/50·50고출력 영동 ●30인치 스페셜라이저 서라운드의 일체형
●7밴드 5도드 이퀄라이저 ●올바른음 사용된 스피커로 최상의 음질
인엑스-44C(비디오) ₩798,000
인엑스-44G 소비자 ₩598,000
*35555 AA-44(A1-A10)-44G(A2-A10)-44S-44G

<p>판매대리점</p> <p>교촌사 372-0304-5 동양 355-2420 384-7935 한양 242-0700 신원 720-8578-8 신원 720-8526-8 신원 715-1011</p>	<p>아북 795-2240 아북 539-9699 영광 923-0064 영광 923-0065 영광 923-0066 영광 923-0067 영광 923-0068 영광 923-0069 영광 923-0070</p>	<p>4337 4633 9626 9627 9628 9629 9630 9631 9632 9633 9634 9635 9636 9637 9638 9639 9640</p>	<p>352-9017-98 818-9844 499-9820 247-9844 439-9678-9 888-9853 982-1300</p>	<p>397-9033 217-9886 349-1140 979-9564 326-3427-3 372-7900 784-1234</p>	<p>754-2222 984-1234 359-2222 980-2222 985-2500 372-7900</p>	<p>3442-2331 217-9886 322-9877-789 404-7911-2 415-9888 217-9888 476-5177-489-9870</p>	<p>472-9226 442-3311-2 488-3434 693-6986 881-9881 420-9801-2 867-5264</p>	<p>649-9661 19-5551 994-4499 662-3630 888-2833 888-2834 888-2835 888-2836 888-2837 888-2838 888-2839 888-2840</p>	<p>8022-878-0022 983-7117 871-7474 882-3040 880-8388 880-8389 880-8390 880-8391 880-8392 880-8393 880-8394 880-8395 880-8396 880-8397 880-8398 880-8399 880-8400</p>	<p>642-6060 913-9078 823-9403 566-9333 511-1114 598-9999 823-2233</p>	<p>224-1234 411-2500 976-1034 632-2900 410-7114 598-9999 918-1000 636-6600</p>
--	--	---	--	---	--	---	---	---	--	---	--

세상과 함께하는 중생 포교 전국구에서 세계구로



채택수 교수(서울대 선편과)

"많은 이가 거쳐가는 길, 나 역시 마찬가지, 피할 수 없다. 그냥 큰 눈썹은 없네"라며 소감을 말하는 채택수(선학) 교수는 퇴임에 대한 아쉬움은 이미 떨친 듯 했다.

18세에 출가, 30세에 본교 불교학과 입학, 35세에 본교대학 석사, 44세 동경대 문학박사 수료, 51세 본교부임-이것이 채교수가 살아온 삶이다.

만학도의 길을 걸어온 탓인지, 유난히 공부욕심도 많고 포교도 그만큼 열심히 하는 채교수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 그간 모았던 책들을 다 후배에게 썼지, 그후 바람하나 짊어지고 미국·캐나다에 가서 선편공부를 했다. 그러다가 포

교도 많이 했다. 작년 8월쯤에 갔었더니 제자들이 포교원을 세웠더라. 그게 참 기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해 준다.

계속 권속이 없어서 출가분하다 하지만 그와 동학의 인연은 이곳에서 노교수의 눈길을 못떼게 하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듯 이것 저것 꺼내놓으며 '선학수'라는 선학과 전공필수 과목을 아나고 풀으면서 작년에 최다 수 강생이 신청을 해 한국일보 등에서 취재를 해가기도 했었는데, 타대학은 대부분 성(性)에 관한 것이었지만 우리학교만을 달랐으며 이제는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속해 있는 절이 없어 전국에 포교를 하러 다니는 바람에 별명이 '전국구'라는 채교수는 대학원 수업을 제외하면 이젠 시간의 제약이 없으니 그동안 미루어둔 논문도 쓰고 포교도 해서 별명을 '세계구'로 바꾸겠다며 퇴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했다.

노년이 창으로 비치는 정각원 사무실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 출가분 한듯, 혹은 새로운 세계로의 나감이 기뻐서인지 계속 웃음을 잃지않는 채교수에게서 그의 끝없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영원한 동국인 이야기 아쉬운 마감 그러나...

제2의 인생도약

퇴임교수 인터뷰

새로운 만남에의 기대 젊은이 못지않는 열정 넘쳐



김동준 교수(사범대 국어교육과)

"소감이랄게 뭐 있나.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내 손때 묻은 연구실이 없어진다는 것과 자유로워 진다는 점이지"

학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한 별다른 퇴임소감은 없다고 말하는 김동준(국어교육)교수, 그는 퇴임후 명예교수로 남아 문학예술대학원, 교육대학원, 학부강좌 등 강의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강의준비에 여념이 없다.

동국대가 문학의 흐름을 주도하던 시절 동국대의 '동'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김교수는 1951년 본교 국문과에 입학했다.

"그때는 동국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부심이 대단했지.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자부심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옛날의 위상은 어디갔는지 원...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까워"모교를

떠나며 그것이 못내 아쉬웠던지 그때 그 시절의 회상을 늘어놓는다.

"교수, 학생, 직원, 동국인 전체가 하나 되어 발전할 수 있어, 대학인의 대학이 되어야 해" 동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말에서 그의 학교에 대한 애정이 뽐낼 수 있다.

한국 시조 학회를 창립해 초대, 2·3대 명예회장을 역임했고, 88년 학원 민주화를 위한 평교수 협의회를 창립할 만큼 문학과 학교에 대한 김교수의 열의는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지금도 잃어가고 있는 우리소리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어 우리소리연구회의 발족을 기쁘게 하고 있고 '한국 시가의 열혈이론'이란 책도 곧 발간될 예정이다. 그의 열정은 퇴임이라는 단어 앞에서 전혀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신세대를 구세대의 고루한 인식의 틀에 묶어 놓아선 안되지"기성세대는 신세대의 새로운 용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학생들에게 환한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내일을 이끌어 갈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그의 미소속엔 뉘랴까 미래에 대한 밝은 그림이 드리워져 있는 듯 하다.

"나의 학문은 끊이지 않아. 새로운이란 타이틀이 붙은거라 생각하네.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라며 김교수는 힘찬 날개짓을 위한 각오에 차 있었다.

안사명(정보관리학)교수는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인터뷰를 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편집자)

언제나 정열적인 모습 사회에 기여 노력 계속 할터



이진규 교수(공과대 산업공학과)

"이진규(산업공학) 교수님은 전형적인 학자스타일이고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학생들을 매료시켰죠"라는 공학계열 조교의 말처럼 이교수의 눈에서는 열정적인 젊음의 패기가 느껴진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글귀를 떠올리게 하는 이교수, 평소 건강을 우선시하여 테니스로 다진 건강한 체구 못지않게 그 눈빛이 강렬하다.

"경제질서를 바로 잡고 경제 부흥에도 공헌이 되고 싶었다"라는 이교수는 50년대 어두운 시절을 일으며 세우고자하는 큰 뜻을 가지고 본교 경영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그 시절에 대학을 다닌다는 것이 흔치 않았던 일이었고 까니도 제대로 못 챙기는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았다고 한다.

강의에 너무나 열성을 가지고 충실을 기해서 학생들을 당혹하게 만든다는 이교수는 학교강의 뿐만 아니라 교외 출장강의에도 열심이다. "지금까지 사회로 부터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사회로의 반환을 해야 하는 때이다"라는 이교수는 사회봉사활동으로 각종 기업체에 출장을 나간다. 그리고 "자기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기는 하지만 훗날 배운 것을 다시 사회에 되돌리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어느덧 70대에 접어들어 송금송금 맞았는데도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전해 주려는 이교수의 활기찬 모습에 그의 가슴에 꽃핀 꽃의 생기가 무색할 지경이다.

커다란 목소리로 약간은 위압감을 주는 듯 한 이교수. 하지만 "이시대 대학생활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보다 사회와 전체를 생각하는 태도이다"라고 하며 정을 느끼게 한다.

이교수는 퇴임후에도 계속적인 출장을 통해 더욱 활발한 기업체 세미나로 산학협동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형 품질경영 전략과 한국 기업문화의 창출을 주제로 하여 집필을 하고자 한다. 끝으로 인해 생기는 또 다른 이교수의 시작은 밝아보인다. 이교수의 활기찬 모습에 동국의 발전도 기대해본다. (경)

심없는 학자의 길 항일민족운동사 연구에 전념



김창수 교수(사범대 역사교육과)

"아들, 딸을 포함해서 우리집안에 동대 출신이 20명이나 된다"며 은근히 자랑하는 김창수(역사교육)교수의 말에서 동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퇴임이나 재임이나 학자에겐 상관없는 일이야. 이제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본격적으로 학문의 길을 걸어보자. 단지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시간이 줄어들 것일 뿐이야"라고 퇴임소감을 밝히는 김교수의 열렬한 열지모를 아쉬움이 짙게 배어있었다.

동대가 옛날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김교수는 동국의 발전을 위해서 교수들이 학문활동을 보다 활발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단치는 교

수가 되자'라는 신조로 40여년간의 교직 생활을 해왔으며 요즘 대학에는 학생의 비위를 맞추는 교수들이 있는데 이는 꼭 학자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김교수는 독립운동을 했던 집안의 영향으로 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근현대사를 연구하였다. 그 후 항일민족운동사 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독립운동사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항일불교독립운동사도 정리하였다.

이전 학생들과 요즘 학생들의 성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요즘 학생들을 이기적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건건 일부일뿐이지 전체학생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있다"고 김교수는 밝게 웃었다.

퇴임 후에는 썼던 논문을 정리, 보완하고 '동학농민연구'와 '항일민족운동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지금은 다음달 6월에 열리는 만호 '홍진'의 사상과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다며 "홍진은 김구와 이승만의 지혜를 모두 갖춘 독립운동가"라고 세세하게 알려주는 김교수의 모습에서 퇴임이란 말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물나가는 여름과 다가오는 가을, 그 사이에서 있는 느낌이 퇴임을 맞는 김교수의 심정이 아닐까. (심)

자애로운 선비상 구현 "금지과 자신감을 가져라"



박준환 교수(법정대 행정학과)

"박교수님은 학점에 너무 짜, 과제도 많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다른 교수님 수업을 선택해"

학기초 수강신청때 박준환(행정학)교수 수업을 신청했다 하니 선배들이 한 충고다. 선배들의 이런 말이 선입견으로 작용한 탓일까? 매시간 꽉찬 강의와 시험후에도 수업을 강행하는 박교수의 모습이 고지식함으로 받아들여 졌으니.

그러나 인터뷰를 위해 개인적으로 만난 박준환교수는 지금까지 기자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많이 달랐다. 교수연구실을 들어설때 웃으며 반겨주는 모습에서 할아버지와 같은 푸근함을 느꼈다고 해야하나. 다음학기부터 연구실을 다른 신입교수

에게 넘겨 줘야 한다며 남은 짐정리를 하는 박준환교수. 퇴임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도적으로는 떠나지만 마음은 언제나 여기 있어요. 다음 학기에도 강의는 계속 하는데요"

한때는 학생으로 지금까지 스승으로 약 35년간 동대를 지킨 역사의 산증인 박준환교수. 반평생을 함께한 동대에서의 퇴임을 못내 서운해 하시며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학교 학생들 걱정을 덧붙인다.

"우리 학생들은 애교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훌륭한 학생들인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기 마련인데, 난 평생 시험을 쳤는데, 사람은 75세때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요"라며 후배이자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 학교에 대해 금지와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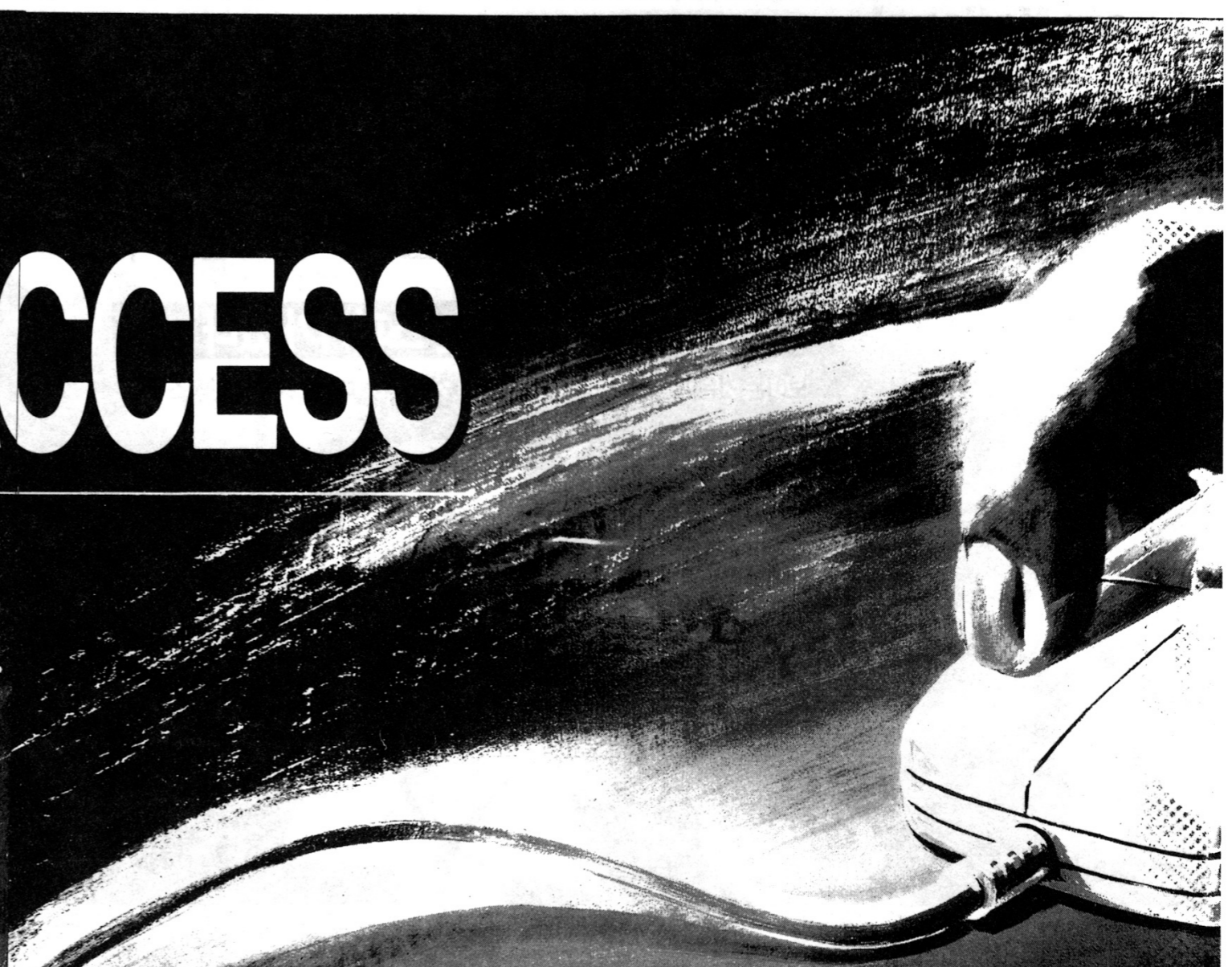
퇴임후에도 가족과 떨어져 계속 경주에 머물며 강의하고 연구하고 사회운동에 참여하겠다는 박준환교수.

한평생을 동대와 함께 하겠다는 박교수의 말에서, 진정한 스승의 모습, 그가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깊이가 느껴진다. (회)

ANYTIME ACCESS

지금, 선경에 접속하십시오

선경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선경을 키웁니다.



전지훈련 - 농구부

내일 전국 최고를 꿈꾸는 이들



◇학우들의 무관심이 섭섭하다는 송태영(체교 1)군

포부만은 전국 최고예요... 운동선수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보기에 유머감각이 넘치는 농구부 1학년 선수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전국 최고'라고 밝힌다.

이 끝난 뒤에 바로 들어가는 훈련은 그야말로 이열치열이란 말을 실감하게 한다. 한번 하기도 버거운 코트왕복훈련을 백번씩 하다보면 선수들은 '신이 빠진다'. 그동안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한 농구부 선수들에게 이번 여름은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있다. 이번에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한 키 198cm의 유망주 송태영(체교1)은 "세 경기에 모두 패해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또 훈련에 들어가면 의무에 넘칠 것"이라며 지난 경기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다.

(양지연 기자)

남산골서당 - 사범대

참교육 실현하는 예비교사들의 꿈찾기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만드는 예비교사들

7월 30일 오전 11시, 학내공사로 어수선한 학림관 한 강의실에서 색다른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강의구성 인원수 8명, 원탁형의 책상배열, 자유토론위주로 진행되는 수업방식, '경찰청 사람들'에 붙잡힌 현필과 그레텔의 얘기에 터지는 웃음소리.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열린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단 5일간의 수업을 위해 7월 한달을 교과과정 마련, 홍보, 포스터제작으로 분주하게 보낸 사범대 학생들.

교과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사범대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나왔다고 한다. "만화를 일일이 찍고, 더빙하느라 아르바이트는 꿈도 꾸지 못했다"는 김지수군(수학교육 2).

(한누리 기자)

'96 여름을 뜨겁게 보낸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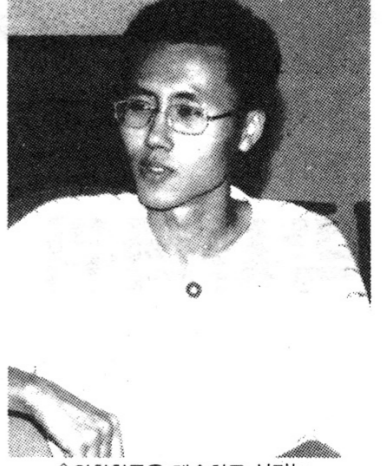
난 방학을 이렇게 보냈다

개강이다. 뜨거운 여름방학동안 동학의 학우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여기 의미있는 활동으로 더위를 잊고 지낸 학우들의 생활을 소개한다. (편집자)

동을 했으나 가끔할만한 공간정국속에 하루도 편할날이 없었다고 한다. 연세대 상황이 나빠지면서 서촌연 의료단을 도와 부상학생을 치료해주었다는 민이는 그때의 추억에 대해 얘기한다.

최근 한의대를 찾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은 한의학 분과에 대한 굳건한 결의가 담긴 플래카드이다.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이은 교수들의 출근거부 선언은 한의학 분과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로 예과1학년때 불교 의료봉사동아리인 '심우회'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한다. 이번 의화에 대한 그의 설명을 따르면 대장지는 항상 무의촌을 선정하며, 이번 선정지는 경상북도 산간벽지인 봉화군.



◇의화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박한돌(한의대 분과1)군

인터뷰를 마쳤다. 의화를 통해 자신의 한계에도 부딪혔고, 한의학도로서 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음을 깨닫고 돌아온 그는, 한의학 분과에서 한의사가 권리를 되찾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를 키워 나갈 것이며, 그의 여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이다.

(세)

범민족대회 - 통일선봉대

통일을 염원하는 젊은이들의 한결음



◇끝까지 카메라를 피하는...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의지만은 알아달라는 그녀.

8월16일, 나갈수 없는 답답함. 그리고 동료에 대한 걱정... 이전 정말 끝인가 보다. 열기에서 최류역을 뿌리고 우리에게 대한 전원연합의 명령이 하달 되었다... 이것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일기장은 찢기지 않았다. 지금은 이 학생 또한 동학 곳곳을 배회하고 다닌다. 통일선봉대 참가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자세히 밝힐수 없다는 채민(가명), 그녀가 바로 일기장의 주인공이다.

배낭여행이나 아르바이트, 한적한 바닷가에서 피서를 즐길수 있는 여름방학을 잘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통일운동을 위해 온몸으로 땀 흘리는 통일선봉대의 모습은 아름답다.

그는 매년 하계방학만 되면 바빠진다. 예과1학년때부터 연한 의화단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했다.

인터뷰를 마쳤다. 의화를 통해 자신의 한계에도 부딪혔고, 한의학도로서 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음을 깨닫고 돌아온 그는, 한의학 분과에서 한의사가 권리를 되찾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를 키워 나갈 것이며, 그의 여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이다.



인간위주의 경영 - 선경 휴머니지먼트 HUMANAGEMENT

"1년, 365일 선경이 인재를 모집합니다."

- 엔제, 어디서나 열린 선경과 만날 수 있습니다.
정기공채를 폐지하고 연중상시로 인재를 모집합니다.
선경채용상담실에서 연중상시로 입시면담은 물론 지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365일 인터넷(http://www.sk.co.kr)으로 지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95학년도 후기 석/박/사/프/로/필

학문의 성화 높이든 동국의 새 학맥



박사학위

◇김호성(철학박사)= 선권의 대승적 연원 연구 ▲60년생 ▲본교 인도철학과 졸 ▲92~현재 본교 강사
 ◇전재성(철학박사)= 초기 불교의 연기성(patuccasamuppada)연구 ▲53년생 ▲서울대 농화학과 졸 ▲93~현재 한국불교대학 교수
 ◇윤재웅(문학박사)= 서경주 시 연구 ▲61년생 ▲본교 국어국문학과 졸 ▲91~현재 본교 강사
 ◇김명순(문학박사)= Effects of testing methods on learning strateg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54년생 ▲이화여대 영문과 졸 ▲

93~현재 아세아 연합 신학대 교수
 ◇백원기(문학박사)= Thomas Hardy의 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역설적 통합 ▲54년생 ▲본교 영어영문학과 졸 ▲92~현재 전자계산원 교수
 ◇신대진(문학박사)= 조선 후기 실학자의 국방사상 연구 ▲36년생 ▲육군사관학교 15기졸
 ◇원영상(교육학박사)= 교원정계제신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연구 ▲35년생 ▲건국대 경제학과 졸 ▲94~현재 교육부 교원정계심위원회 상임위원
 ◇서남수(교육학박사)=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 ▲52년생 ▲서울대 철학과 졸 ▲95~현재 영국 런던대 교육연구소 과장
 ◇이재목(법학박사)=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규범통합이론을 중심으로 ▲65년생 ▲본교 법학과 졸 ▲94~현재 대전대 강사

◇박경(법학박사)= 헌법소수에 있어 당사자적격확대이론의 연구-미국판례법상 Standing이론을 중심으로 ▲57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 ▲95~현재 미 Bio World사 재직
 ◇호광석(정치학박사)= 한국 정당체계의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환경·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57년생 ▲본교 정치외교학과 졸 ▲90~현재 본교 강사
 ◇이영희(정치학박사)= 한국의 대외적 국가자율성 변화연구-대미관계를 중심으로 ▲51년생 ▲본교 농학과 졸
 ◇김정호(행정학박사)= 사무자동화가 행정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8년생 ▲본교 도시행정학과 졸 ▲92~현재 김천전문대 교수
 ◇람우식(행정학박사)= 세외수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56년생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졸 ▲전북대 강사
 ◇김길수(행정학 박사)=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용과 저항에 관한 연구-해책기법 차분장의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62년생 ▲전북대 행정학과 졸 ▲95~현재 서남대 강사
 ◇김진국(행정학박사)= 지방정부의 종합품질관리제(TQM)에 관한 연구 ▲60년생 ▲부산대 행정학과 졸 ▲95~현재 농협중앙회 농업운영전략 기획팀 근무
 ◇신연식(경제학박사)= 조선 후기 상거래형태와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43년생 ▲한양대 경제학과 졸 ▲82~현재 경영전문대 교수
 ◇박성환(경영학박사)= 다기능농촌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47년생 ▲국민대 경영학과 졸 ▲92~현재 성결대 교수
 ◇유호종(경영학박사)=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60년생 ▲본교 무역학과 졸 ▲현재 중부대 교수

◇박종돈(경영학박사)=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한 진입동기에 관한 실증적연구 ▲59년생 ▲94~현재 시립인천전문대 교수
 ◇김복만(경영학박사)= 회계정보보장과 정보이용자의 특성이 도산예측에 미치는 영향 ▲52년생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 ▲94~현재 대한경영컨설팅 이사
 ◇권치환(경영학박사)= 아카운타빌리티가 회계감사에 미치는 영향-감사조사의 검토과정을 중심으로 ▲62년생 ▲서울대 경영학과 졸 ▲89~현재 인천회계법인 근무
 ◇손용택(문학박사)= 대도시 주변 농업공간의 구조변화-수도권을 중심으로 ▲57년생 ▲본교 지리교육과 졸 ▲91~현재 본교 강사
 ◇정암(문학박사)= 풍산취락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태백산지 일대를 중심으로 ▲62년생 ▲관동대 지리교육과 졸

◇김영빈(이학박사)= Fuzzy pairwise mappings on fuzzy bitopological spaces ▲59년생 ▲본교 수학과 졸 ▲94~현재 서남대 교수
 ◇김익성(이학박사)= Various Forms of the Axiom of Choice in an Elementary Topos ▲60년생 ▲본교 수학과 졸 ▲95~현재 삼지대 교수
 ◇김영민(이학박사)= Sodium Nitroprusside 단결정에서 Fe의 평균 자승변위와 전기장 기술기에 관한 연구 ▲62년생 ▲경기대 물리학과 졸 ▲현재 경기대 강사
 ◇오명식(이학박사)= 생분해성 가교공중합에스테르의 합성 및 물성에 관한 연구 ▲39년생 ▲경북대 화학과 졸 ▲교육부 교육연구관

(9면으로 이어짐)

파고다외국어학원

人材가 人材를 만든다.



외국어 교육 따위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27년 전부터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외국어 인재양성이란 일념하에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과 손잡고 외국어 교육의 외길을 묵묵히 걸어온 저희 PAGODA는 이제 명실공히 국내 최고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인이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귀리를 반드시 외국어 정상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알파리스트 - 엄홍길!
 그를 세계적인 산악스타로 걸러 낸 파고다의 CAN DO SPIRIT !!
 이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십시오!



전 세계 14개의 8,000M급 고산 중 7개의 등정에 성공한 엄홍길(본학원 소속)은 최근 아시아 최고 및 세계 최고의 고산 등반가로 한국인의 기개를 떨치고 있다.
 사진촬영:1996.5.1. 다문라기리(8,167M)정상의 엄홍길

영어

기초 영어회화
 SIDE BY SIDE · FIFTY · FIFTY
 A CONVERSATION · LADO · COMMUNICATE
 석사 이상의 최고 한국인 교수진

유학·진학·취업영어
 TOEFL(L,C)/TOEIC(L,C)/GRAMMAR/VOCABULARY
 READING/Writing/GRE/SAT/GMAT/APK/N/TIME
 기초영어법·독해·청취·작문·어휘/발음교정

미국 WISCONSIN 대학반
 한국 PAGODA → 미국 위스콘신 WESLI
 1~3개월(1일 5시간/주 5회) 2~4개월(1일 4시간/주 5회)
 교육중 입학허가서 취득 교육중 미국대학(원) 편입학

최신 영어 특강 프로그램

미국인 영어회화
 SLE COURSE (12명 정원)
 1일 1시간 1과제/단계별 Class운영
 교수진원 미국인

INTENSIVE S.L.E. COURSE
 1일 2시간 주 5회/각반 12명 소수정예
 과학적 교수법/최신 교재 전문미국인

INTENSIVE ENGLISH COURSE
 미국인 교수(석·박사)에 의해 1일 5시간 집중 영어교육
 영어의 종합적(회화·문법·독해·작문) 능력향상 4개월과정
 미국대학 공인 프로그램 (주 5회 12명 정원)

일본어

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독해 / 일본어 문법

스크린 일어회화 및 청취
 일본인의 생활언어를 스크린을 통해 학습

일본어 회화(초급 I · II · III)

NHK 일본어
 워싱턴을 통한 본격적 일본어 청취

* 교수 전원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 출신

독어·불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

독어(문법/회화)

불어(문법/기초회화/프랑스인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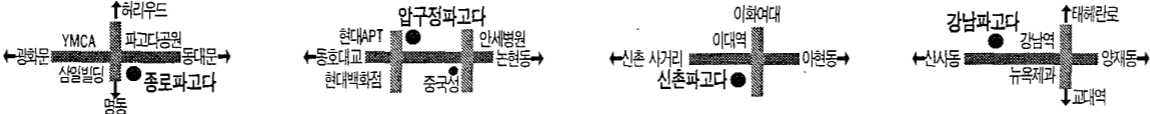
중국어(문법/기초회화/중국인 회화)

스페인어(문법/회화)

러시아어 강좌 및 모스크바 대학반
 1일 3시간/주 5회
 러시아인 교수
 4개월 교육후 모스크바 대학

PAGODA를 찾아서

PAGODA 중문: 274-4000 PAGODA 압구정: 3442-4000 PAGODA 신촌: 706-4002 PAGODA 강남: 501-4002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PAGODA

(8면에서 이어짐)

◇이춘우(농학박사)=벼짚 추출물에 대한 보리 및 옥새풀의 생리활성반응 ▲57년생 ▲분교 농학과 졸 ▲91~현재 작물시험장 근무

◇박관규(농학박사)=Heat Pipe의 원리를 이용한 시설은실의 온수난방방열기 개발 ▲35년생 ▲서울대 농공학과 졸 ▲95~현재 농진청 농업기계화 연구소 석좌연구관

◇김희재(농학박사)=일본구조 및 전이분석의 일본전환 육림사업별 적용을

위한 기초연구-중부지역을 중심으로 ▲65년생 ▲분교 입학과 졸

◇김정렬(공학박사)=방사형 스테리블 갖는 전자기결합 광대역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55년생 ▲경북대 전자과 졸 ▲90~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재직

◇김상훈(공학박사)=활성 객체를 가진 C*의 설계 및 구현 ▲63년생 ▲분교 수학과 졸 ▲90~현재 분교 강사

◇김동진(공학박사)=저품질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손상원인 ▲57년생 ▲분교 토목공학과 졸 ▲92~현재 분교 강사

◇김하림(공학박사)=비정형 건축물에

작용하는 풍화종의 평가 ▲54년생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

◇김재식(공학박사)=건축CAD Layer의 표준화 모델에 관한 연구 ▲63년생 ▲경북산업대 건축공학과 졸 ▲중주여자전문대 교수

◇조동우(공학박사)=바닥난방시스템의 축열 및 방열특성 ▲59년생 ▲분교 건축공학과 졸 ▲91~현재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교선(공학박사)=건축 설계·시공 정보흐름과 업무체계에 관한 연구 ▲59년생 ▲분교 건축공학과 졸 ▲한국건설

산업의 구조전망 및 대책들 연심의원

◇김준환(공학박사)=김치발효중 N-nitrosamine의 생성과 억제 ▲49년생 ▲분교 식품공학과 졸 ▲94~현재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수질검사와 과정

◇조갑연(공학박사)=누룩과 밀 곰팡이의 분리, 동정과 재규 중의 곰팡이상변화 ▲52년생 ▲분교 식품공학과 졸 ▲93~현재 중경공업전문대 교수

◇배영주(공학박사)=TOPSIS모형을 응용한 다중성능특성지 파라미터 설계에 관한 연구 ▲59년생 ▲분교 산업공학과 졸 ▲95~현재 충주산업대 교수

◇이건순(가정학박사)=농촌 청소년의 식품 기호, 식생활 행동 및 영양 섭취실태에 관한 연구 ▲48년생 ▲방송통신대 졸 ▲92~현재 농촌생활연구소 실장

◇류정순(가정학박사)=한국 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49년생 ▲서울대 의학과 졸

◇김부환(한의학박사)=창공전에 나타난 진한 의학 사상 연구-'마왕퇴출토의 서', '영후', '소문'과의 비교 연구 ▲61년생 ▲분교 한의과 졸 ▲86~현재 울산 동국한의원 원장

◇홍한섭(한의학박사)=홍화약침과 뜸

자극이 난소적용 횡취의 여성호르몬과 지질 및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 ▲64년생 ▲분교 한의과 졸

◇라경찬(한의학박사)=왕송화 '맥경'의 문헌적 연구-해설을 통한 맥의 체계 및 이론적 근리에 대하여 ▲62년생 ▲분교 한의과 졸 ▲87~현재 한의원 원장

◇곽동욱(한의학박사)=복용약침 자극이 난소 적용 백서의 성호르몬 및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 ▲64년생 ▲분교 한의과 졸업 ▲현재 경안남한방병원 내과과장

석사학위

대학원

▲문상현=현행 '천수경' 연구

▲김진부=동산법대문과 그 선사상 연구

▲송창수=위양종의 성립에 관한 연구

▲김남희=신수도 연구-곽암신우도를 중심으로-

▲유병선=(니아-야부인(NYAY-ABIN DU, 정리일적론)의 논증장(PARARTHA NUMANA)에 대한 연구

▲김경준=상기아사라의 해탈관

▲김성철=초기 유식학과 상성론연구-'섭대비론' 소지상분을 중심으로-

▲이경희=연어인식(Sabdabodha)의 본질에 관한 연구-비르뜨르하리의 언어의 미론을 중심으로-

▲정지만=(선거거감연)의 표기 및 음운연구

▲이정일=청도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구은경=1920~30년대 한국 서사시 장르 인식 연구

▲홍사공=Tennessee Williams극의 여성인물 연구-인간에를 통한 구원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박해경=Shelley의 "A Defence of Poetry" 소론-Fixity of Flexibility의 언어적 유희를 중심으로-

▲전준호=한국 한자어에 대응하는 일본어 의미역 대조 연구

▲박성주=어법, 선초 견명사 연구-대명 활용과 인식을 중심으로-

▲김용경=사계 김정생의 정치·경제 사상 연구

▲김성희=영·정조시대 인물화의 법 연구

▲원성숙=한국의 식물성 염료에 관한 연구-전통 쪽(람)염을 중심으로-

▲홍성훈=버블리의 자연주의·'신시각론'을 중심으로-

▲김태성=생명논리에 관한 연구-인락사와 뇌사를 중심으로-

▲황해진=박광수 감독론-작가·텍스트와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광석=단편 영화(포토 라인)제작에 관한 연구

▲박성철='갈매기'의 비극성 고찰-주로 프래블레프란 인물을 중심으로-

▲김미경=90년대 한국영화의 제작방식 연구-자본과 인력의 변화, 그 영향을 중심으로-

▲홍인표=피터 브룩의 '한 여름밤의 꿈'에 나타난 신체적 전기를 통한 역할 창조 연구-스라니슬라브스키의 '신체적 행동법'과 관련하여-

▲함경아=능의 유원적 연기법 고찰

▲김윤아=60년대초의 한국 가족화극영화 연구

▲이 진=한국불교영화연구-80년대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김미경=영화의 제의성연구-현대 사회에서의 영화의 의식적(ritual)의 가치에 관하여-

▲서영조='로드 무비(Road Movie)'의 인물 분석-로드 무비의 성장 배경과 관련하여 1960년대 말 미국 로드 무비를 중심으로-

▲박 준=일제하 한국영화 신파성의 식민주의적 세계관과 그 연원 연구

▲이혁발=정보화시대에서의 예술에 관하여-미술의 중심으로-

▲한경훈=형이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연구

▲김민수=진보적 환경사상에 관한 연구

▲고은경=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김동욱=신호모형에서 교육비의 생산성의 불균형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경제분석

▲신민호=PC시장 세분화에 관한 연구-초등학생의 구매 결정 속성을 중심으로-

▲김창권=한국증권시장에서의 최초공모효과에 관한 실증적 고찰

▲최성훈=기업합병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 영=Dual Career Couples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전통

직·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김종화=광고모델의 미의 유형과 상품의 일치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박성현=MIS요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정보기술 전문업체 종사원을 중심으로-

▲이윤진=화성암 관입지역의 지형 특성-작약도 지역을 사례로-

▲홍용기=공단건설에 따른 농촌지역의 변화에 관한 연구-경기도 안성군 일대를 중심으로-

▲전우경=Commutative Rings Whose Torsion Modules Decompose

▲송병권=경사진 Si기판위에 성장된 CdTe 박막의 광학적 성질

▲김태호=플라즈마 시카공정에서 SF₆ O₂의 조성비에 따른 6HSiC의 식각특성 연구

▲이형주=Synthesis and Particle Size Control of Styrene/Butyl Methacrylate Copolymer

▲한승준=수용액중 Poly(N-isopropylacrylamide)의 LCST에 미치는 Cyclodextrin의 영향에 관한 연구

▲장광태=Tosyl 및 Acetyl화된 Poly-β(1, 4)-N-acetyl-D-glucosamine의 합성과 용해성에 관한 연구

▲박근덕=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arriers and its Membrane in the Liquid Membrane

▲서연찬=광학활성 3-Acetoxy-2-methylpropanol의 합성 및 응용

▲윤종국=새로운 필라핀(II) 아미드 착물의 합성과 반응성에 대한 연구

▲백진경=관발분석에서의 마하라노비스 일반화제곱거리와 대칭치 및 Bhattacharya 거나축도의 비교

▲조 준=James-Stein 추정량을 이용한 선형판별절차에 관한 연구

▲정종철=서울 도심지 가루수 토양층의 미소절지동물 군집구성 비교연구

▲류수하=웨이브렛 변환 계수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한 영상부호화

▲김홍수=메타정보의 동적 링크를 이용한 하이퍼미디어 브라우저

▲윤병선=준비시간을 최소화하는 멀티미디어 동기화 스케줄링 기법

▲이진석=영역분할 처리에 의한 계층적 서명검증

▲이광수=재사용성을 고려한 그래픽 HTML 문서 편집기

▲이세규=역공학을 통한 객체지향 모델 재사용

▲이정민=OLTP환경에서 RAID레벨 5의 효율적인 캐쉬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김은현=인공지능 탐색기법을 이용한 분산 로컬계획 시스템 구현

▲김대식=하이퍼미디어 정보서비스를 위한 벡터지도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강진곤=국어정보처리를 위한 전용형 한글표의의 평가 및 한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라기홍=토목 맥동의 최소화를 위한 경인 유도전동기 구동용 인버터에 관한 연구

▲고형선=피조권을 이용한 침해예측

▲김학진=밴드 드래인의 막힘 가능성 및 통수능력에 관한 연구

▲박경중=우리나라 사면활동의 특징과 대책공법 연구

▲김민수=합성각형관기둥-H형강보 접합부의 구조특성에 관한 연구

▲조성모=내부다이어프램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충전 각형관기둥-H형강보 접합부의 내력에 관한 연구

▲민영기=주력내 일상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류성현=Gas-Condensate Fluid 상평형에 대한 연속열역학적 응용

▲이두훈=백시니아 바이러스 및 단백질 생산을 위한 숙주 동물세포의 고능도 배양기술 개발

▲차운환=혼합 참기를 중 개발 식용유 조성의 분석

▲이영인=변성전분인 토마토 케첩(tomato ketchup)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박효정=쿠기반죽 공정의 Scale-up에 반죽이 미치는 영향

▲서상원=대장균 HB 101에서 Genome DNA의 분리와 염기서열 분석

▲장인호=물류의 공장배치를 고려한 자기조직화 방식의 일반화된 부분군·기계-셀 형성기법

▲김성수=인간학습을 이용한 산업용 로봇의 프로그래밍 방안

▲우 호=장석순의 학술사상에 관한 연구

▲도영석=홍화 및 홍화유 약침자극이 endotoxin으로 유발된 어혈병태 model에

미치는 영향

▲김성배=길경의 정유성분에 관한 연구

▲손영준=담유, 증압혈의 약작용약자극이 Acetaminophen에 의한 횡취의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이현숙=경년일호환의 항산화활성에 관한 연구

▲서영철=삼중 황연류의 기관지 경화근 이완 효과에 관한 연구

▲박경미=간유, 기관혈의 당구약침자극이 Acetaminophen에 의한 횡취의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유규서=혈부수어암이 자궁내막증 백서에 미치는 영향

▲이승재=해간전이 Carbon tetrachloride로 유도한 횡취의 간증독에 미치는 영향

▲김성희=무어현인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횡취의 실험적 당뇨에 미치는 영향

▲이승택=호도 약침자극이 횡취의 고지혈증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

▲최운용=이산화소요염당의 항산화활성에 관한 연구

▲조위재=육미지황탕 약침자극이 Cyclosporin A로 유발된 횡취의 신독성에 미치는 영향

▲김경복=생간건방이 S-180를 절종한 생쥐 비장의 세포면역활성과 손상된 간조직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

▲김홍우=고지방성 식사로 인한 백서의 고지혈증에 수조순수단인 미치는 영향

▲황근근=청아환의 항산화작용에 관한 연구

▲권은경=내막1호환의 자궁내막증 백서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

▲김승기=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CAPD 및 혈액투석에 혈청 갑상선 호르몬 농도에 미치는 영향

▲김성자=폐암에서 CYFRA 21-1과 나트륨 농양표지자의 진단적 의의

▲정민영=부식 치료를 받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폐동맥 고혈압의 고찰

▲김지홍=확대 외측 도달법을 이용한 관절내 종골 골절의 수술적 치료

▲황신보=자궁내막증 백서모델에서 Danazol과 Decapeptyl의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민석기=진행성 위선암종에서 Sulphomucin과 CEA발현의 진단적 의의

불교대학원

▲허정순=취수백장장규에 관한 연구

▲오지개=중국 선종의 변천

▲박원태=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농업의 사회복합적 역할에 관한 연구

▲조용신=불교노년복지시설 입소자의 처우현황과 욕구실태에 관한 연구

행정대학원

▲박상관=한국정부조직혁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은형=행정절차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달달출 골재채취 금지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시 교통난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오학선=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책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관우=신세대 장병의 의식변화에 따른 지휘통을 방안

▲윤종필=간호장교의 탁아행정발전방안 연구

▲곽복학=지역난방 확대보급 및 발전전망에 관한 연구

▲공광규=한국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관한 연구

▲최현영=한국 군사사상에 관한 연구

▲권오성=항공기 위기상황시 조종사의 의사소통 효율성 증진에 관한 연구-공군 항공기 사고사태를 중심으로-

▲이영희=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연구

▲정광선=한국 국방의 세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국방현장의 세계화해인 분석을 중심으로-

▲박인동=미·북한 경수로 협상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철진=유연 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연구-평화유지 상비군 창설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

▲김용이=전쟁실태사태연구-전쟁목표와 군사전략의 부조화를 중심으로-

▲오경현=남북한 군사 통합에 관한 연구

▲김용준=한국과 북한의 통일체제에 관한 비교연구-통일환경·기구·체제를 중심으로-

▲고영일=북한의 대미 정책과 관계개선 전망에 관한 연구

▲윤양중=탈북·귀순자 수용대책에 관한 연구

▲김광열=독일과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박영수=자동차 교통사고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교통법규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신종각=한국경찰의 방법활동에 관한 연구

▲박순규=청소년비행의 가장환경적 요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서명호=군 자살사고의 실태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변석하=군 교통사고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한국 육군 교통사고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이상만=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박민희=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급여제도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여익구=저소득 노년계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 연구-생활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최순이=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이성숙=한국사회복지서비스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비교-

▲이은희=이민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욕구도 조사

경영대학원

▲김재진=우리나라 연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고찰. -WTO체제하 국내 연산업의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신인철=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일본 중소기업의 비교 연구-금융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진상호=우리나라 무역 프레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박동기=크림사업의 대외협력 합작투자 타당성에 관한 연구

▲남기성=기업문화와 조직 유효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박선숙=리더십유형과 Followership 유형의 관계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병덕=명예퇴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정권=갈등이 구성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장·가정·감정을 중심으로-

▲정근=조직몰입과 개인주의 성향이 조직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성필=화학공장의 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이재민=멀티미디어 PC 구매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구매결정 속성 분석을 중심으로-

▲최상철=자동차 유통경로에서 딜러와 직영영업소의 성과에 관한 연구

▲이종기=고객중심적인 주택 마케팅에 관한 연구-고속독시대 시장적응을 중심으로-

▲권석광=가족 구매의사 결정에서 부부의 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승용차 구매시 취업주부를 중심으로-

▲김중복=중소기업의 부실 및 재무적 애로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오성환=ALM기법을 이용한 상호인용급의 수치 구조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이금룡=미국유통업체의 국내시장 진입과 영향에 관한 연구

▲신병진=한국기업의 서남아시아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회무고 및 불교국가를 중심으로-

▲윤석진=WTO 금융서비스 협상이 한국금융시장 개방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일=신각속과과세에 관한 연구

▲안병래=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컴퓨터 브리핑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군현황 브리핑시스템 자동화를 중심으로-

▲오홍열=ALMA시스템을 이용한 ALM의 실증 분석-D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욱=중소기업의 노사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필=효율적인 학교 업무를 위한 생활기록부 전자화에 관한 연구

▲이영환=LAN을 출력관리 시스템

▲장정태=일제하·신흥교 연구-강증산의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교육대학원

▲박정숙=교감에 대한 교사의 기대 분석

▲윤광수=학교조직 구성원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

▲안승갑=교정임기제가 교장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윤일환=중학교 학생 혼속에 관한 진단적 연구-인천광역시 공립중학교를 중심으로-

▲권영덕=중등학교 교내 연수의 운영 진단

▲손광춘=군 리더십 발전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김옥남=초등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 조사 연구

▲이수영=진로탐색프로그램의 적용이 중학생의 자의적개발 발달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

▲조영자=블로그채널의 유아놀이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정주=영상매체를 통한 불교유아 교육프로그램의 모형개발 기초 연구

▲서우성=불전에 나타난 태아의 생명 존중관과 태교

▲조선연=조형놀이를 통한 행동작업이 유아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원=극적소설과 성격소설의 대비적 고찰-서사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장정숙=쓰기 지도의 실천적 방안 연구-중학교 1학년생 대상으로-

▲양정숙=가림과 노산의 시조관 비교 고찰

▲엄철용=서울시 거주민의 환경의식에 관한 연구

▲김학모=인천지역의 거주지 선호에 관한 연구

▲임정희=서울시의 거주지 선호에 관한 연구-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최경민=상해대학교민단의 결성과 활동

▲한영숙=신라 비로자나불상 조성에 관한 연구

▲황보연=수학불안과 가정환경·지능·수학성숙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김정수=과제학습을 통한 발전적 수학교육에 관한 연구

▲우왕기=수학능력평가 평가에서 신뢰도와 판별도의 비교 연구

▲신영숙=공자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김형운=민족공통체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중심으로-

▲허일식=민화에 반영된 조선시대의 미의식 연구

▲김민숙=동양화화에 있어서 서예와의 관계

▲유대선=중학교 미술감상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지역 중학교 2학년생 중심으로-

▲김중화=문신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연구

▲전영진=미래주의 회화의 조형이론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최 철=초현실주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작가를 중심으로-

▲김재익=실용 감시술의 불교시교

▲박길원=우상 이연진의 시세계

▲염중진=농기구의 점프수에 관한 정형학적·나이도 분석

▲허도환=유도 선수들의 체급별 기술 사용에 관한 조사 연구-고등학교 경기를 중심으로-

▲유관평=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및 체육학습 환경에 관한 연구

▲김태실=영어 조기교육과 영·미 문

화의 지도

▲최만식=노·장 사상에서 본 Wordworth의 자연관 연구

▲신용현=Mark Twain의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연구-Huck의 인간애를 중심으로-

▲남태승=주니어 잡지를 중심으로 본 여학생의 북식반전에 관한 연구

▲이화영=실업고교 의상과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박현근=학습자와 교사의 요구도 조사를 통한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홍상규=학교보건 업무 정보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홍성필=효율적인 학교 업무를 위한 생활기록부 전자화에 관한 연구

▲이영환=LAN을 출력관리 시스템

▲장정태=일제하·신흥교 연구-강증산의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정보산업대학원

▲윤준섭=건설업계의 공사진척 증진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K 건설회사 공사진척 사무를 중심으로-

▲김현준=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Network에서의 관리효율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최선복=전산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정보처리학원의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한덕희=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응용시스템 설계시 효율적인 데이터의 중복방안

▲임세훈=언론보도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연구-6·29이후의 언론중표 사례를 중심으로-

▲여연구=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연구-KBS ITV와 CableTV2가 교양채널을 중심으로-

▲김태원=TV의 심소보도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 인식행태에 관한 연구

▲이창선=멀티미디어PC의 대중매체 기능대안성에 관한 연구

▲이종현=우리나라 도면대여점에 관한 연구-실태분석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홍영욱=우리나라 편집대행업에 관한 연구-실태분석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산업기술대학원

▲박수영=무선호출에서 전송속도 증가에 따른 수신 에러 확률고찰

▲김정래=위성통신용 AFC트래킹 기법에 관한 연구

▲차인호=인버터 출력파형에 따른 유도전동기의 맥동토크 특성 해석

▲김정섭=투자전략 영업정보업무의 분석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박찬용=도시서민 책임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신영용=관공속박 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신호=오염 토양에서의 중금속 흡착특성에 관한 연구

▲오학수=식사매뉴 안내용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강도영=수류관의 크기에 관한 연구-인간공학을 중심으로-

▲이장수=고속출동 속성을 위한 빛가 지 주요형질에 관한 연구

▲한호남=RAPD를 이용한 원주리속의 유전적 변이에 대한 연구

지역개발대학원

▲신영근=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시·군통합 지역의 산업·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한중주=경주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연구

▲이호근=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자금조달 및 경영인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96년 남북한 자판 통일

◇'96 크리언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행사를 다녀와서

남북한 하나되어 한글자판 통일 밤샘회의·열띤토론·과학논리로 이념차 극복

필자는 8월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주도인 연길시에서 세번째 열린 96 크리언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다. 한국, 북한(조선),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약 1백여명의 관련 학자들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이대회에서 우리말 컴퓨터 처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현안들을 북한 학자와 토의하면서 통일은 이미 우리들 가슴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된다는 것 보다는 우리들이 가진 심성은 적어도 학문적 논리를 앞세워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서로 격정적 주면서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쪽에서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지라도 하나의 근사한 결과 도출에 애를 썼다. 주요 논의사항은 컴퓨터 용어, 자

판, 자모순, 부호계로서 양측은 그간의 만남에서 차이점은 알고 있었기에 입장 차이가 분명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해 나갔다. 자모순 분과 토의는 우선 양측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가운데 서로 무엇을 양보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방향에서 논의를 하였을 때 상호간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자모순의 용도는 정보교환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일반 자모순이 되었을 때 남북의 모든 사전 배열 순서를 고쳐야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초성·을을 음가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배열하고, 중성·에선 우리와 같다. 그래서 북한은 자모순은 한국안을 따르고, 한국은 자모순을 북한안에 따라 맨뒤에 두기로 양보했다. 나머지 북자들은 한

국안을 따랐다. 한국은 북모음은 단모음 뒤에 두어 북한안을 따랐다. 그리고 옛 한국의 순서는 모두 남한의 안대로 되었다. 정지음과 치두음 표기 글자를 중국측의 요구로 자모순에 포함했다. 자판은 현대 한글 24에 단모음화 된 11개를 추가로 배치하여 26자를 기본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북한의 권오일박사는 많은 실험결과를 가지고 온 그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여 좌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옛글 자료 입력을 위하여 낙자를 쉬프트 키에 배치하였다. 배열은 남한의 안과 거의 같았으며 그 이유는 현재 북한의 규격이 되어 있는 자판 배열은 선문대 정희성교수의 도쿄대학학위논문(1986년)의 내용을 조선대학을 통하여 북한에 전달되어 채용되었

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용어는 약 2천개가 선정되었고 90%는 단일안으로 하고 10%는 북수안으로 합의하여 공동 출판하기로 했다. 합의 과정에서 일의 양이 많아서 회의가 끝난 다음날 까지도 밤을 새워 회의를 하였다. 용어 분과에서 남한 측은 비교적 젊은 분들이었지만 북한의 허수 교수는 50대 중반으로 발생 회의가 계속되자 젊은 놈들이 늙은 놈 죽인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13일 본격 논의에 들어간 부호계 분과는 현재 국제 표준에서 남한이 주도하고 있는데 정보화 수준이 낮은 북한은 열세를 만회하고자 공동안을 새로 만들어서 ISO에 제안하자고 했으나 정보화가 앞선 한국입장에서선 곤란하여 공동연구를 계속 하자는 선에 합의했다. 현재 새로운 부호계인 ISO 10646에는 단독으로

남한의 안을 반영해 두고 있다. 그리고 국제 표준에서 사용한 '한글'은 '한국의 글'로 인식된다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그 뜻과 기원을 설명했지만 수긍하지 않아서 이상적인 명칭을 계속 연구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필자의 개인적 견해는 기계번역과 같은 언어 처리가 요구되는 지금 남과 북의 어느 안도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혼란정음의 과학성과 언어처리 그리고 국제표준 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공극적인 부호계를 남북이 공동으로 만들어 남북경협과 통일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회의가 끝난 다음 백두산과 두만강 그리고 용정의 명소를 구경하고 북경에서 하루 저녁을 보낸 다음 날 혼잡한 북경 공항을 1시간이나 늦게 탈출하듯이 빠져 나오면서 대한항공을 타고서 한 시름을 놓으면서 펼쳐 든 신문에서 한층된 사태를 보고, 연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진정한 통일 사업은 정치적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공인 표준을 비롯한 각종 규격 그리고 사고 방식 등의 다른 점을 인식하고 이를 좁히기 위하여 하나씩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

변정용 (전산정보학부 교수)

달 하나 천 강에

베를린 리포트 II



우리에게 분단과 통일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독일의 새로운 수도 베를린을 떠나 귀국하던 지난 광복절, 한달여 한국신문을 접하지 못했던 필자에게 스투어디스가 건네준 하루가 지난 신문은 어떻게 재충전시켰던 머리속을 단숨에 일워치로 피들려놓고 말았다. 그리고 지난 20일, 민족문제요 통일문제로서 한국인들이 가장 염원하는 장미빛 주제를 둘러싸고 한쪽은 '적'이 되고 다른 한쪽은 '도식계열'라가 뽀뽀 비극적인

상황을 초라하게 맞이하고 말았다. 도대체 통일을 하자는 것인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이 시점에서 다시해야만 할 것 같다. 지난 90년 10월3일 통일직전 동독의 마지막 수상이었던 '드메지에르'가 울분 한국에 왔을때, 과거 동서독간의 냉전구조보다 지금의 남북한 관계가 더 경직되어 있는것에 놀랐다고 실토했었다. 이번 베를린 방문시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들렀을때, 통일 6년이 지난 베를린 실상을 두루 소개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상호 이해와 파트너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아무래도 한국이 포용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잊지 않았다. 필자는 분단당시 두번 그리고 통일이후 두번에 걸쳐 베를린을 방문하였다. 지난 84년 독일정부 초청으로 처음 방문했을때 동서베를린 사이에 살벌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나 도시대중교통수단을 함께 사용하고 승용차를 이용한 동베를린 통행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체감하고는 남북한간의 적대관계와는 사뭇 대조를 뼈저리게 느꼈었다. 그리고 하나가된 오늘의 베를린은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마져 숨겨져 21세기 새로운 침팬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었다.

통일의 상징이 되어버린 브란덴부르크문을 중심으로 오른쪽 지척에 있는 제국의회 의사당은 99년 이전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보수되고 있었으며 그였에서는 정부청사의 신축공사가 한창이었던, 왼쪽 장벽이 있던 자리주변에는 세계적 대기업들의 도시개발이 진행중이었다. 나아가 신공화이나 부상열차들의 대철프로젝트들이 지상과 지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등, 오늘의 베를린 시는 도시전체가 공사장을 방불케하고 있었다. 2차대전 직전 4백3십만 인구가 지금은 3백5십만으로, 반세기동안 정지되었던 거대도시가 미래의 세계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전구화대의 6월8일이었던 마셜플랜을 능가하는 1조5천억마르크라는 역사상 최대규모의 원조가 이미 통일비용으로 투입된 결과이다.

특히 엄청난 통일비용에 힘겨워하면서 구소련이나 중국권국가들에 1천5백억마르크의 유무상원조를 제공한 독일정부의 여유와 동독 재건과정에서 문화재복구와 전통복원사업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한 독일인들의 자신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자신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끝같은 '통일'이라는 말을 놓고 우리는 왜 이모양인지 아십니까.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거리좌판에서 이제는 역사의 유물이 된 장벽조각과 인민군계급장들을 보여 우리도 망상에서 깨어나 합리적인 통일정책을 갖고 권위주의 정권과는 다른 문명사대에 걸맞은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심익섭 사과대 행정학과 교수

대화로 거리를 걸으면서 지난 6월 마지막에 보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답배연기가 자욱하게 깔린 무대 구석에서 그는 아코디언으로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었다. 빠르고 경쾌하게 시작던 아리랑 율음은 속도가 점차로 느려지더니 마지막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한누리 기자)

분단장벽 넘어넘어 통일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이 어땠나고요?... 설명할 수가 없어... 지금 기자가 상상하고 있는 모습이 열배, 백배 이상의 고통어린 모습이라고 하면 대답이 될까요?"

8월6일 오후 2시. 회색철조망이 반쯤 세워진 강강술래극장 연습실에서 정성산(연극영상학부1)씨를 처음 만났다.

국내최초로 창단된 귀순자극단 '오마니'의 공동연출자이자 연기자인 그는 9일 앞으로 다가온 연극 '코리아'의 준비를 위해 하루 8시간씩 강강술래극장에서 대본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28살의 젊은 나이이지만 새내기임을 강조하는 그의 밝은 표정뒤로 잠을 청하는 귀순자들과 답배연기가 자욱하게 깔린 무대가 보였다.

7살아래이면서 선배가 되어버린 아이러나... 자연스럽게 그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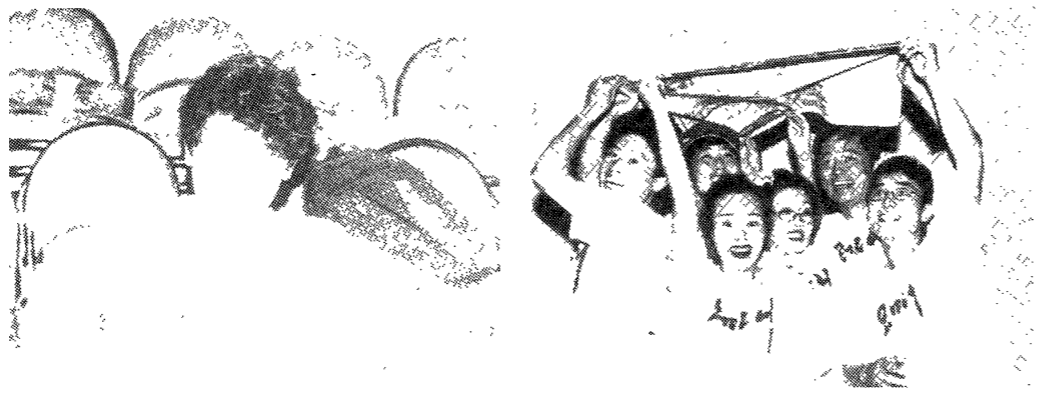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맘껏 상상하고 자유롭게 술 마시고... 봄에는 연극영상학부 학생들과 농활을 함께 가기도 했구요. 북한생활을 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서 얻습니다"

'북한을 잊을 수 있어 좋다는 것이 대답이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두웠다. 특히 탈북당시상황을 얘기할 때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귀순 인식 극단 '오마니'탐방기

"마지막 어머니 모습 잊지못해"

아리랑 읊조리며 통일염원



◇북북한의 이질감 극복과 통일의 염원을 담아내기위해 '극단 오마니'는 창단됐다. 좌는 정성산씨, 우는 연습광경의 모습.

있었다. "94년 11월...영하를 넘나드는 추위에 압록강을 건넌것입니다. 대남방송을 들었다는 것이 나의 죄목이었는데... 안전부요원의 삼엄한 추격에 강을 건넌때엔 추위도 못 느꼈어요. 그후 두달여동안 중국·홍콩을

거지·병어리로 떠돌다가 천운으로 밀항에 성공했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기 싫다는 듯 다른 주제를 얘기하자는 그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나'고 물었다. 한참의 침묵... 툭기어린 눈빛... 떨리는 대답...

인터뷰를 마치자 그는 무대로 돌아갔다. 귀순자의 실상을 실화한 3막에서 그는 아이러나하게도 귀순자에게 냉소를 보내는 시민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그의 모습을 뒤로하고 연습실을 나섰다.

개막을 3일 앞둔 8월12일 연습실은 평범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연출자 권호성(본교 연극영화학 89졸)씨의 지시 아래 장시간의 조명테스트 후 배우들의 고정된 위치가 선정됐다.

그 속에서 정성산씨는 바쁘게 1인3역의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대변하는 허리 디스크환자, 김건모의 스피드출을 그럴듯하게 추는 청년, 아버지를 찾아 탈북한 귀순자들을 자유스럽게 넘나들고 있었다.

그리고 8월 15일. 1백20명의 관객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연극 '코리아'가 시작됐다. 하얗게 깔린 스모그, 음울한 푸른색 조명이 무대중앙을 비추자 저음의 '코리아'노래가 울려 퍼졌다.

율음에 맞춰 남·북한을 상징하는 두 배우는 4대 강국의 상징인 미·중·러·일의 인형에 걸박 받으며 손을 맞잡았다. 계속 울리는 코리아 노래.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고개... 5천 굽이를 넘어가네... 지구의 통일은 한민족 통일..." 관객과의 자유토론시간인 2막. 민감한 질문이 던져졌다. '탈북이후 북에 남은 가족들의 처우에 관련된 질문이었다. 관객연구석에서 "잘못될 줄 알고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쉽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 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쉽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금강·고려

▲출사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지정좌석제 부분 실시 수강인원 제한제도 병행

출석부르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강의실내 자리를 고정시키는 지정좌석제가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2학기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아울러 수강인원제한도 병행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구상중에 있다가 교무과의 추진으로 올 2학기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정좌석제는 의자이동 불연속이 없도록 불박이 의자가 구비된 11개 대형강의실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강의실은 원형관

개, 명진관 옆 가건물1개, 동국관3개, 사범대3개, 학술문화관3개로 배정이 확정됐다.

또한 한정된 강의실에 학생들이 몰릴 경우 지정좌석제와의 병행이 불가피한것을 피하기 위해 수강인원도 제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정좌석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는 불리한 점, 수강인원제한제는 제한 기준이 불분명한 점으로 인해 여러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항주대와 자매협정 10월경 샹하이대와 협정 예정

본교는 중국 항주대학교와 지난 7월 21일 자매협정 체결을 끝낸뒤 오는 10월경 일본 샹하이대학교와 자매협정 체결완료 예정으로 해외자매대학이 24개대로 늘어나게 된다.

5월 초 중국 북경대와 서북대를 비롯 2월 미국 미시간 주립대를 포함해 올해 모두 5개 대학과 자매

학을 맺은 상황이며 가장 많은 해외 자매대학과 자매협정을 체결한 성과를 냈다.

이로써 교수 및 교육연구자 교류, 학생 및 연구 자료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져 앞으로 학문증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교수회 총회장 선거 김익기 교수 피선

지난 21일 개최된 서울·경주 합동 교수총회에서 김익기(사회학)교수가 교수총회장으로 피선되었다.

1차 투표에서 김경제(생명자원경제학)교수가 1백6표, 김익기(사회학)교수 86표, 임영정(역사교육)교수 26표 등 각각 획득했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익기 교수가 1백51표를 획득해 차기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이번 총회장에 선출된 김익기회장은 "교수회 위상을 강화하며 교수들의 권익신장과 학교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한편, 이어 개최된 서울캠퍼스 교수회에서 서울캠퍼스 교수회 부회장에 박준환(산업공학)교수, 감사에 백경남(정치외교학)교수가 새로 선출되었다.

직원노조 정기총회 김청옥 새위원장 취임

직원노조(위원장=김윤길)는 오는 29일 정기총회를 학술문화관 세미나2실에서 개최한다.

먼저 1부에서는 95년 9월 1일부터 96년 8월 30일까지의 예·결산을 공개하며 제7대 직원노조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새 사업계획의 내용은 △변화하는 대학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학발전의 기틀을 마련 △ 교육개혁과 노동법 개정에 대한 연대활동을 벌이는 것 △97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 △조직원들의 자기 계발을 위해 삼는것등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지난 6월 20일 당 선된 김청옥 새위원장의 취임식과 제7대 직원노조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다.

등록률 21일 현재 29% 31일까지 등록기간연장

96학년도 2학기 등록률이 21일 현재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리과(과장=박환오)는 등록마감일이 24일까지 예상등록률은 지난해 1차마감 등록률인 53%를 넘어 60%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중·장기 분리수거 개선안 발표 분리수거 실명제·셀프수거제 등 도입

관리처는(처장=김종욱)관리과는 중·장기적인 분리수거 개선안을 마련해 오늘(2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캠퍼스내 분리수거와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청소제도 개선안을 위한 예산, 인력부족이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번 개선안은 분리수거물품목, 캔류, 페트병류, 종이류, 유리병류, 기타 일반 쓰레기등으로 기존보다 단순화 시켰으며 분리수거함을 증설, 세트도 재배치 한다.

새로 종이류의 '분리수거실명제'와 '셀프수거제'를 도입하는데, 각 부서에 종이류 분리수거함과 부서명이 기입된 봉투를 각각 배부한 후, 봉투가 차면 개인이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서는 공문발송등의 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또한 분리수거함의 종류에 따라 색을 달리해 색깔별 인식이 가능케 해서 분리수거의 효과를 높이며 이는 전 캠퍼스에 적용된다.

한편 2학기중에 완화된 폐기물처리법 개선안에 따라 기존의 소각로를 철거하고 고성능 소각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소각로는 기존의 종이, 목재만 소각되던 것과 달리 페트병, 플라스틱 조각도 소각이 가능하다.

이어 계속 문제되어 왔던 이·공 계열들의 실습용 폐기물은 각과의 실험실습비로 처리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활)도 연계해 자판기 1대당 종이컵 수거함 설치, 유리병, 컵라면제품의 단계적 판매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계현 관제계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내 각 주체들의 의식개혁"이라고 말하며 "97학년도 부터 학생회에 환경분과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우장학금 전달 1백만원씩 17명 수혜

동우장학회(회장=황명수)는 23일 12시 학술문화관 3층 교수휴게실에서 동우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학기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수여식은 서울캠퍼스 김경제(철4) 등 11명과 경주캠퍼스 이수진(철교아동3) 등 6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로 진행되었다.

이번 장학금 대상 선정기준은 평균 성적 B+이상이고 가계가 곤란한 재학생으로 1인당 1백만원씩 수여된다.

동우장학회 사업을 위해 총동맹회는 지난학기까지 2년에 걸쳐 3억 5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장학금 분배는 단과대별로 공정하게 되고 있으며 단과대별로 학생, 교수등 직위에 상관없이 추천을 할 수 있다.

경국 성적 B+이상이고 가계가 곤란한 재학생으로 1인당 1백만원씩 수여된다.

동우장학회 사업을 위해 총동맹회는 지난학기까지 2년에 걸쳐 3억 5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장학금 분배는 단과대별로 공정하게 되고 있으며 단과대별로 학생, 교수등 직위에 상관없이 추천을 할 수 있다.

전체교수회의 및 학사보고회 "교육개혁 구체화와 특성화에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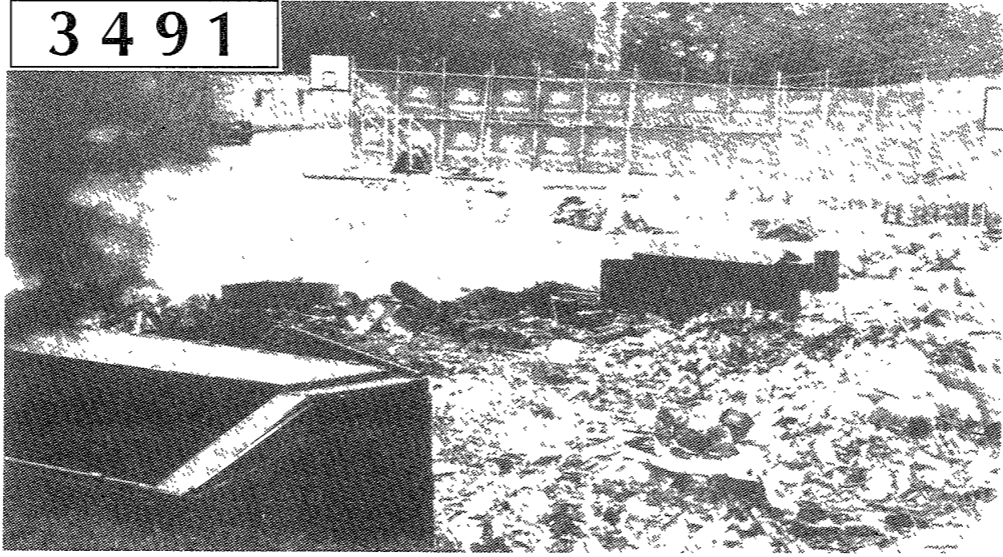
96학년도 2학기 전체 교수회의 및 학사보고회가 지난 21일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오원익이사장, 송석구총장, 3백 74명의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송석구총장은 "교육개혁을 구체화 하고 특성화

정책을 통해 우수한 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기획조정실(실장=성용걸·화학)은 대학 종합평가 준비현황, 96교육개혁 바람의 참가, '동국대학교 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 계획서 작성, 사무조직 개편, 전산망(LAN)1차 구축현황 등을 보고하고 오는 10월초에 있을 대학종합평가간 현지방문준비와 전산망(LAN)2차 구축 등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들의 자화상... 학생들의 휴식공간 및 운동장인 만해광장에 조각상이 만들어졌다. 이는 본교 쓰레기의 김포매립지 반입할을 금지시켜 때문이나 이것은 우리 동국인 모두의 분리수거에 대한 무관심 탓이다. 사진은 지난 23일 만해광장의 쓰레기더미와 조각장면. (이태훈 기자)

미시간대 교환학생 파견 영어권엔 국내 최초

본교는 국내에서 최초로 영어권 자매대학 미시간 주립대학에 교환학생 5명을 선발, 파견했다.

교환학생 김준서(경의·3) 김대은(경의·3) 신현수(경의·3) 이상욱(경의·3) 강연주(웅성·3) 위 5명은 등록금 40% 감면혜택에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교환학생은 3학년 대상으로 평균학점 3.0이상 TOFEL 5백20점 이상인 7명의 학생이 지원 5명이 선발됐으며 학교교류부에 의하면 "지금은 시범초기로 5명을 선출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환학생 대학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조직 개편 임학과·시설과 신설

임시업무의 다양화와 관제과의 과당업무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 것을 높이기위해 기획조정실(실장=성용걸·화학) 기획과는 서울캠퍼스에 교무처 임학과와 관리처 시설과를, 경주캠퍼스에 교무처 임학과를 2학기에 각각 신설했다.

교육개혁이 잦고 업무량이 증가해 임학과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전달부서 없이 4개 조직으로 나뉘어진 관제과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높이기 위해 시설과가 신설됐다.

정년교직원 퇴임식

교직원 퇴임식이 지난 20일 오전 11시 총정실에서 있었다. 정년퇴임자는 채택수(선학)교수, 안사명(정보관리학)교수, 이진규(산업공학)교수, 김동준(국어교육)교수, 김강수(역사교육)교수, 박준환(행정)교수, 박준환 총무부처장, 박동원 관제과직원 등이다.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지난 19, 20일 본교 학술문화관에 서울 한국국립윤리학회(회장=송재운·국립윤리학회)주관으로 '제3회 한·중·일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지난해 남경학술회의에 이은 이번 회의는 19일 스한·중 근대사회의 유교윤리와 도가사상 △불교와 한·중의 근대윤리, 20일 스한·중 근대사회의 윤리관 조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 오석규 박사 추모비 건립

본교 동영회(회장=문선기)는 30여년 본교에 재직하고 오석규박사의 추모비를 고인 2주기를 맞아 지난 6월 23일 신세기 공영묘원 고인의 유택에 건립했다.

추모비 건립은 입학동기 및 졸업동기생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본교 이 부태학장, 허천택(이·영문철)교수가 발의, 비문을 직접 작성했다.

화전무대

휴지(休止)자판기

○...본교 중앙도서관에 배치된 휴지자판기는 모금함인 듯, 분명히 판매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동전을 집어 넣으면 동전만 골짜고하는 감감 무소식.

실마 무명 휴지가 나오는 것은 아닐테고

'휴지자판기'가 보다는 차라리 '모금함'이라는 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이 어떨런지.

이에 회전문대자 두손 모아 말하기를 "휴지(休止)자판기야, 이제 그만두고 휴지(休紙)를 다오"

질투

○...곤봉과 쇠파이프가 만나 예기중이다.

곤봉:쇠파이프야 쇠파이프야 나는 너가 부러워 쇠파이프:왜?

곤봉:나는 나보다 키도 크고 훨씬 튼튼 하잖나. 어떤것도 겁나지 않을 것 같아.

쇠파이프:곤봉야 곤봉야 나는 너가 더 부러운 걸.

곤봉:왜?

쇠파이프:나는 나보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지만 나보다 친구가 훨씬 많잖나

곤봉:누가?

쇠파이프:너의 오랜친구인 최류탄이랑 사파탄이랑 지랄 탄, 그리고 특한 척척이, 흰색 페퍼프고...

물멍이:나두

형인(?)학생회

○...개강호를 며칠 앞두고 이르러서 총인원을 바쁘게 뛰어들어다니는 동대신문사기자들.

각 단과대 학생회로 취재수첩과 펜을 들고 힘찬 발걸음을 댄건만... 이제엔 열렬한 학생회가 대부분.

이유는 다름아닌 연세대 사건(?)의 여파라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2학기 사업계획이요? 없어요. 나중에 와요 나중에..."하고 문전박대(?)를 하는 학생회도 있었다고.

이에 회전문대자 한숨을 쉬며 한마디, "연대개강 늦어지고, 본교 학생회 마비되고 정부와 학생회원 왜해적인 상공인가?"

개교 90주년- 참사람 만드는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95학년도 결산자료를 공개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대학원 이사장 오 녹 원

동국대학교총 장 송 석 구

■ 감사의견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하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동국대학원의 1995회계년도(1995년3월1일~1996년2월29일)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바, 우리의 의견으로는 자금운용계산서 및 전반적인 재무상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었고 주요 업무도 적절하게 집행되었음을,

1996년 5월

학교법인 동국대학원 감사 이 기 화

감사 전 연 성

학교회계자금운용계산서 (교비및 기성회비회계)		대차대조표 (수익사업회계·부속병원회계 포함)		대차대조표 (법인일반업무회계 및 학교회계)	
(1995.3.1~96.2.29)		(1996년 2월29일 현재)		(1996년 2월29일 현재)	
과목	금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1. 유동자산	67,056,666	1. 유동자산	11,516,438	I. 유동자산	67,020,402
(1) 현금	47,747,926	(1) 현금	4,383,148	(1) 현금	40,295,647
(2) 단기금융자산	17,341,341	(2) 단기금융자산	3,804,150	(2) 단기금융자산	22,966,379
(3) 기타	2,198,399	(3) 기타	1,999,140	(3) 기타	3,759,576
2. 고정자산	1,887,112	2. 고정자산	2,266,296	II. 고정자산	11,534,117
(1) 토지	1,887,112	(1) 토지	2,266,296	(1) 토지	11,427,107
(2) 건물	0	(2) 건물	0	(2) 건물	0
(3) 기타	0	(3) 기타	0	(3) 기타	0
3. 기타자산	1,971,333	3. 기타자산	3,550,462	III. 기타자산	209,471
(1) 유가증권	1,971,333	(1) 유가증권	3,550,462	(1) 유가증권	209,439
(2) 기타	0	(2) 기타	0	(2) 기타	87,699
(3) 기타	0	(3) 기타	0	(3) 기타	53,276
합계	69,028,000	합계	15,324,156	합계	81,554,989
(1) 현금	1,139,333	(1) 현금	1,139,333	(1) 현금	1,139,333
(2) 단기금융자산	3,341,341	(2) 단기금융자산	3,341,341	(2) 단기금융자산	3,341,341
(3) 기타	5,968,696	(3) 기타	5,968,696	(3) 기타	5,968,696
(4) 토지	1,887,112	(4) 토지	1,887,112	(4) 토지	1,887,112
(5) 건물	0	(5) 건물	0	(5) 건물	0
(6) 기타	0	(6) 기타	0	(6) 기타	0
(7) 유가증권	1,971,333	(7) 유가증권	1,971,333	(7) 유가증권	1,971,333
(8) 기타	0	(8) 기타	0	(8) 기타	0
(9) 기타	0	(9) 기타	0	(9) 기타	0
(10) 기타	0	(10) 기타	0	(10) 기타	0
(11) 기타	0	(11) 기타	0	(11) 기타	0
(12) 기타	0	(12) 기타	0	(12) 기타	0
(13) 기타	0	(13) 기타	0	(13) 기타	0
(14) 기타	0	(14) 기타	0	(14) 기타	0
(15) 기타	0	(15) 기타	0	(15) 기타	0
(16) 기타	0	(16) 기타	0	(16) 기타	0
(17) 기타	0	(17) 기타	0	(17) 기타	0
(18) 기타	0	(18) 기타	0	(18) 기타	0
(19) 기타	0	(19) 기타	0	(19) 기타	0
(20) 기타	0	(20) 기타	0	(20) 기타	0
(21) 기타	0	(21) 기타	0	(21) 기타	0
(22) 기타	0	(22) 기타	0	(22) 기타	0
(23) 기타	0	(23) 기타	0	(23) 기타	0
(24) 기타	0	(24) 기타	0	(24) 기타	0
(25) 기타	0	(25) 기타	0	(25) 기타	0
(26) 기타	0	(26) 기타	0	(26) 기타	0
(27) 기타	0	(27) 기타	0	(27) 기타	0
(28) 기타	0	(28) 기타	0	(28) 기타	0
(29) 기타	0	(29) 기타	0	(29) 기타	0
(30) 기타	0	(30) 기타	0	(30) 기타	0
(31) 기타	0	(31) 기타	0	(31) 기타	0
(32) 기타	0	(32) 기타	0	(32) 기타	0
(33) 기타	0	(33) 기타	0	(33) 기타	0
(34) 기타	0	(34) 기타	0	(34) 기타	0
(35) 기타	0	(35) 기타	0	(35) 기타	0
(36) 기타	0	(36) 기타	0	(36) 기타	0
(37) 기타	0	(37) 기타	0	(37) 기타	0
(38) 기타	0	(38) 기타	0	(38) 기타	0
(39) 기타	0	(39) 기타	0	(39) 기타	0
(40) 기타	0	(40) 기타	0	(40) 기타	0
(41) 기타	0	(41) 기타	0	(41) 기타	0
(42) 기타	0	(42) 기타	0	(42) 기타	0
(43) 기타	0	(43) 기타	0	(43) 기타	0
(44) 기타	0	(44) 기타	0	(44) 기타	0
(45) 기타	0	(45) 기타	0	(45) 기타	0
(46) 기타	0	(46) 기타	0	(46) 기타	0
(47) 기타	0	(47) 기타	0	(47) 기타	0
(48) 기타	0	(48) 기타	0	(48) 기타	0
(49) 기타	0	(49) 기타	0	(49) 기타	0
(50) 기타	0	(50) 기타	0	(50) 기타	0
(51) 기타	0	(51) 기타	0	(51) 기타	0
(52) 기타	0	(52) 기타	0	(52) 기타	0
(53) 기타	0	(53) 기타	0	(53) 기타	0
(54) 기타	0	(54) 기타	0	(54) 기타	0
(55) 기타	0	(55) 기타	0	(55) 기타	0
(56) 기타	0	(56) 기타	0	(56) 기타	0
(57) 기타	0	(57) 기타	0	(57) 기타	0
(58) 기타	0	(58) 기타	0	(58) 기타	0
(59) 기타	0	(59) 기타	0	(59) 기타	0
(60) 기타	0	(60) 기타	0	(60) 기타	0
(61) 기타	0	(61) 기타	0	(61) 기타	0
(62) 기타	0	(62) 기타	0	(62) 기타	0
(63) 기타	0	(63) 기타	0	(63) 기타	0
(64) 기타	0	(64) 기타	0	(64) 기타	0
(65) 기타	0	(65) 기타	0	(65) 기타	0
(66) 기타	0	(66) 기타	0	(66) 기타	0
(67) 기타	0	(67) 기타	0	(67) 기타	0
(68) 기타	0	(68) 기타	0	(68) 기타	0
(69) 기타	0	(69) 기타	0	(69) 기타	0
(70) 기타	0	(70) 기타	0	(70) 기타	0
(71) 기타	0	(71) 기타	0	(71) 기타	0
(72) 기타	0	(72) 기타	0	(72) 기타	0
(73) 기타	0	(73) 기타	0	(73) 기타	0
(74) 기타	0	(74) 기타	0	(74) 기타	0
(75) 기타	0	(75) 기타	0	(75) 기타	0
(76) 기타	0	(76) 기타	0	(76) 기타	0
(77) 기타	0	(77) 기타	0	(77) 기타	0
(78) 기타	0	(78) 기타	0	(78) 기타	0
(79) 기타	0	(79) 기타	0	(79) 기타	0
(80) 기타	0	(80) 기타	0	(80) 기타	0
(81) 기타	0	(81) 기타	0	(81) 기타	0
(82) 기타	0	(82) 기타	0	(82) 기타	0
(83) 기타	0	(83) 기타	0</		

영상매체비평

-TV편 '짜짓기'의 상품화

학벌·외모로 사랑의 순수성 왜곡

대부분의 동물과는 달리 인간의 짜짓기는 생애의 특정한 시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 점은 진화된 인간과 그렇지 못한 동물들 가르는 많은 특징 중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시도 때도 없는 인간의 짜짓기는 시도 때도 없는 동물의 짜짓기로 부터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고 있으나 상품화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간 사회가 짜짓기를 제도로,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끊임없이 만들어서 수용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TV방송국은 짜짓기를 요리를 위한 기본 장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 싶다.

'퀴즈 신비의 세계'(KBS)에서는 동물들의 교미 장면들이 의인화된 선정적인 대사와 함께 소개되고, 'TV는 사랑을 싣고'(KBS)에서 미혼의 인기스타가 옛 친구나 첫사랑을 찾아온 어떻게든 짝지어 보려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런대로 잘 나가면 연속극들도 다급 긴장과 시청률 확보를 위해 서둘러 백역들의 짜짓기를 감행하기 일쑤이다. 심지어 '김국진'을 '김국자'로 둔갑시켜 '홍기훈'과 짜짓게 놓고 웃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사랑의 스튜디오'(MBC)나 '퀴즈미팅'(SBS)은 짜짓기를 아예 전경화시킨 '경연장짜기' 류 요리에 속한다. '사랑의 스튜디오'는 93회의 연극을 파시하면서 '퀴즈 미팅'은 해의 여왕등극 등의 물망에 관세하면서 인기 흐르는 미혼남녀와 발달한 대학생을 일요일 아침에 출동시킨다.

짜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후배나 친구가 하던 '뚜'의 역할을 TV가 맡는건 결혼까지 내다 보는 선남선녀의 만남에서도 그렇다. '사랑의 스튜디오'에서는 매회 각 4명의 남녀가 여러가지 질문과 장기자랑, 퀴즈 등을 하며 세고개 짝 넘어오 상대방을 파악한 뒤 '순간의 화살표가 경성을 좌우한다'는 '최종선택'을 동시에 하게되면 쌍방향으로 화살표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커플이 탄생한다.

그런데 '사랑의 스튜디오'의 마담 뚜는 안목이 좀 까다롭다. 출연자가 모두 미남, 미녀는 아니지만 도회적인 세련됨을 풍기는 외모이다. 그부한 느낌을 주지않기 위해 보통의 선보는 자리에서라면 일고 나오지 않을 법한 민소매 뺏웃이나 간이복셔츠, 조끼차림의 출연자가 많다. 대체로 여성은 20대 중반, 남성은 20대 후반으로 고학력에 반듯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출연이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작정을 하고 나온 것임을 프로그램 안팎에서 알 수 있다. 서로에게 결혼관이나 결혼후 경제권, 시부모 봉양, 가사 분담 등에 관한 질문이 진지하게 오가거나 100회에 가까운 출연자들의 친목모임이 활

성화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도 결혼 커플이 속속 생겨나는 것이 그 근거이다.

공개적인 출연 신청을 통해 방송을 타게 된 일반인들이라 시청자들에게 뜻밖함과 친근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 그다지 광범하다고 볼 수 없는 이들 1등급 신랑·신부 후보들의 짜짓기는 나이가 들었거나 못 배웠거나 변변한 직업을 가지지 못했거나 대도시에서 살지 못하는 처녀·총각들에게 소외감과 위화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일부일처제 가부장적 결혼제도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거부감을 사고 있다. 또한 공중과 TV를 통해 중매시장이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개탄하는 여론들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짜짓기는 신부과 재력과 외모 등의 복합 변수가 함께 돌아가는 시장 상황과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아니나 다를까 이 시대의 마이다스 TV는 조그만 상품들 미끼로 이것을 더 큰 상품으로 만들어 전파에 싣고 있는 것이다.

한승희 (영상원 영화학 석사과정)

◆96 서울 국제 만화 페스티벌 참가기

줄속준비와 지나친 상업성으로 아쉬움 남겨

만화산업발전에 공헌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해야

평소 만화를 너무 좋아했던 나는 96 서울 국제 만화 페스티벌(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imation Festival 96 이하 SICAF96)이 삼성동 무역센터 대서양관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매체를 통해 접하고서는 그 기쁨에 밤을 지새웠다. 그러는 동안에도 언론과 주최측인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에서는 '세계적인 만화전지', '만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꾀하고 세계만화분야로 발돋움 하려는 행사'들의 화려한 문구를 써가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물론, 나의 기대는 그만큼 더욱더 커졌다.

드디어 기다리던 행사일. '아, 이럴수가!'

이것이 매표구 앞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다. 50여미터쯤 되어 보이는 기다란 줄이 그것도 몇 겹이나 겹쳐져 있고, 어린 아이들의 고함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울트루나 술을 파는 사람들의 행렬로 행사장 앞은 거짓말 조급 보태 흡사 전경터나 시장바닥을 연상시켰다. 물론, 관람객의 질서를 유도하는 요원들이 있었으나 그 수에 비해 관람객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억누르려 애썼다. 그대도 난 그때까지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안에는 괜찮겠지. 홍보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운영될테니까. 어서빨리 외국의 유명한 카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만든 만화의 모습, 그리고 국내를 비롯한 해외의 우수 단편만화영화들을 봤으면...' 하지만 내 기대는 3천원의 입장표를 내고 행사장 안으로 한 발을 내딛으면서 폭삭 무너졌다. 말도 없는 전시장 안에는 사람들의 검은 머리만 보일뿐 세계유명만화작품에 애니메이션은 저 어디엔가에 있을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난 그대도 꼭 봐야겠다는 열망에 그 사람들을 밀치고 헤치고 들어가치고 치어며 행사를 관람해야 했다.(그것을 관람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뿐만



◇오른쪽 상단 사진은 러시아 тури지 코소부킨의 작품이며 하단은 인도네시아 라를리 바드루딘의 작품이다.

가, 관람객의 인식부족, 그리고 주최측의 관리소홀로 전시회장은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관람객들은 그냥 그 좁은 통로 바닥에서 잠시 지친 다리를 쉬어갔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화의 상품가치에만 치중해 만화상품을 파는 영업부수가 전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관람객의 대다수인 어린 아이들이 있는 이 곳에서 성인대상의 만화상품까지 버젓이 전시판매하고 있었다. 전시회인지 상암을 미끼로 하는 차차하고서라도 어떻게 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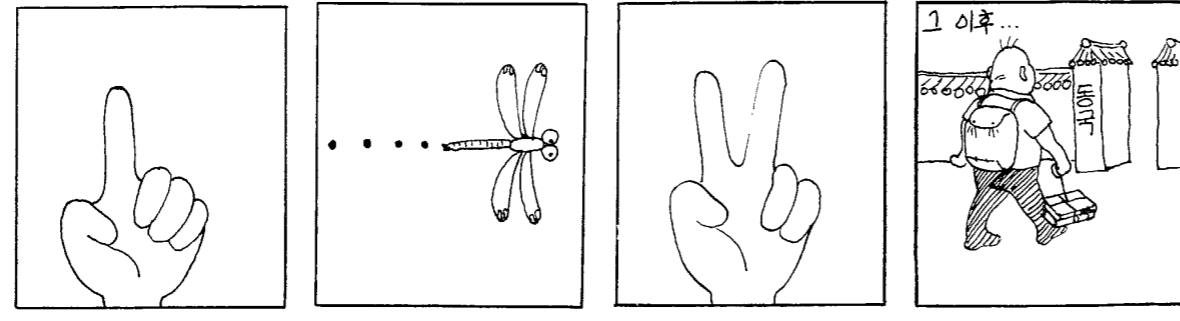
이들이 찾는 전시장에서 버젓이 성인대상의 만화상품을 전시하고 있는 것인진 몰라도 모를 일이다. 그대도 이긴 나의 편에 속한다. 아이들을 상대로 한 만화판매의 경쟁적 오락형태는 더욱 놀랍다. 아이들에게 일반·대중가요를 들려주고 춤을 추게하거나 퀴즈를 내어 상품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투. 퀴즈 문제 중 하나를 그대로 읊기만 이렇다. '어린 여러분 여기서 아저씨가 문제를 냈어요. 맞추는 어린이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 숫치너와 노치너의 차

이는? 아쩨...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어린이만도 거의 1백명정도였다. 다행히 순수한 아이들의 대답은 '노와 노의 차이'였다. 후후, 난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그때 그 사회자의 한마디, '맞는 걸로 하죠. 하지만 정답은 단 한번의 차이였습니다', 할말 없다. 성인 전시장과 어린이 전시장으로 분리시켜 전시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올해로 2번째를 맞는 SICAF96을 보고 느낀 것들이다. 물론, 국내만화산업과 세계와 만화산업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만화에 대한 인식의 틀을 넓혔다는 것에서는 두손두고 환영한다. 그러나 이 행사가 앞으로 체계적이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최인 문체부와 만화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도 두손두고 찬성한다. 따라서 내년엔 열릴 SICAF97은 이번처럼 5개월만에 즉박 준비하는 단시적인 이력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SICAF96행사가 많은 오점을 남겼지만 SICAF97은 그 오점의 루까지 만화발전엔 더하는 내실있는 행사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96 서울 국제 만화 페스티벌(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imation Festival 96)은 어린 모습속에서 지난 14일 개막해 8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21일 아쉬운 막을 내렸다. (김상민 기자)

작은 펜



Advertisement for '메이리' (Meri) and '비운의 올림픽' (The Olympic of Misfortune). It discusses the state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impact of the Olympics, mentioning the '메이리' brand and the '비운의 올림픽'.

Large advertisement for Epson and TriGem. It features a woman's face and promotes the '삼보스타일러스' (Samsung Stylus) series of printers and scanners. Text includes '오늘은 웬지, 삼보스타일러스 쪽으로 사정없이 내 맘이 끌리네요' and lists various printer models like the Stylus I and Stylus I.s.